

#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녀들을 강화함, 16쪽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함, 22쪽

금식 헌금이 뭐예요?,  
친10쪽





“우리의 청녀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과 영원한 교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의 청녀들은 가족의 신성을 더럽히는 세상에 맞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녀들을 강화함”, 16쪽.

# 리아호나



표지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터슨



친구들 표지  
그의 날개 아래, 제이 브라이언트  
와드, Visions of Faith  
Collection, Mill Pond Press,  
Inc., Venice, Florida, may  
not be copied



"지구의 중심에서", 26쪽 참조

##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6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년들을 강화함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의식의 회복과 성약을 기뻐함
- 32 교리와 성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마사유키 나카노 장로
- 34 선교 도구가 되는 가정의 밤
- 38 가족을 강화함: 출산의 신성한 힘
- 40 대제사 정원회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 43 형제애의 불 러렌 포터 곤트
- 44 말일성도의 소리  
나의 십일조 타이어 사라 웨스트브룩  
영에 귀기울임 마크 파레데스  
내 마음의 편한 느낌 마리나 페트로바
- 48 애독자 편지

##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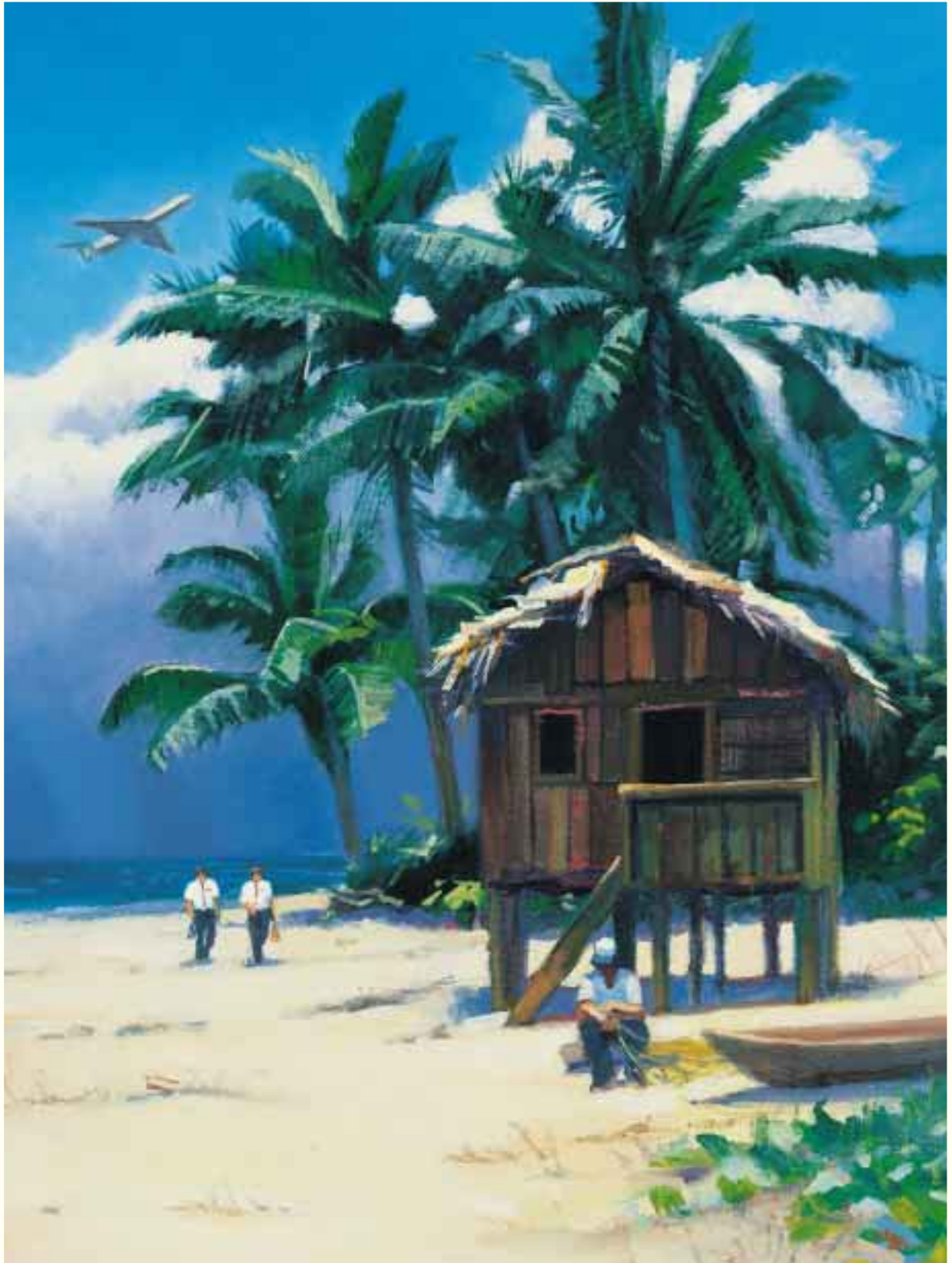
- 8 힘든 결정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12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접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윌리엄 디 오스왈드
- 15 포스터: 무료 차단 프로그램
- 21 알고 계십니까?
- 22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 26 지구의 중심에서 마빈 케이 가드너

##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데이비드의 애완 수태지
- 친8 친구가 친구에게: 담장 뛰어넘기 대릴 에이치 간 장로
- 친1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금식 헌금이 뭐예요? 김벌리 웹
- 친1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 친13 심심풀이: 선교사들에게 인사하기 로버트 피터슨
- 친14 허리케인 속의 집 멜로디 워낙



"성전 의식의 회복과  
성약을 기뻐함",  
25쪽 참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마크 부에너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가라. 먼저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이 유대인에게로다.”  
(교리와 성약 133:8)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앨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러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커, 게리 제이 콜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홀먼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드,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텔, 멜빈 레빈, 샬리 제이 오라커, 아담 시 윌슨, 주디스 엠 필라,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킴벌리 웹

관리 미술 책임자: 엠 겐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471호, 제42권, 제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모든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une 2005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어려운 결정을 내림”, 8쪽:

가족에게 이제까지 내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일에 관한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의 이야기를 읽거나  
들려 준다. 찬송가가 그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가족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셨던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접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12쪽: 보바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는가? 앨마서 57장 19~21,  
25~27절을 읽고, 보바와 그의 친구들을  
젊은 용사들의 모범과 비교해 본다. 어떤  
방법으로 가족은 보바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으로써 얻는 축복”,  
32쪽: 마사유키 나카노 장로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가족은 그들  
자신과 서로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교 도구가 되는 가정의 밤”, 34쪽:  
가족의 관심사와 필요 사항에 맞는 몇  
가지 이야기를 기사에서 나눈다. 여러분  
가족의 가정의 밤을 선교 도구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친2쪽: 이 기사의 처음 세 단락을  
소리내어 읽은 다음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조상이나 살아 있는

친척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한다. 이  
이야기들을 녹음하는 것을 고려한다.  
기사의 마지막 두 단락을 사용하여 간증을  
나눈다.

“담장 뛰어넘기”, 친8쪽: 가족에게  
그들이 주님께 불순종했던 때를 생각해  
보게 한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스모키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불순종의 결과로  
순종의 결과와 비교한다.

##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순결, 38
가르침, 1	순종, 친8
가정 복음 교육, 7	신앙, 친4, 친12
가정의 밤, 1, 34	십일조, 44
가족 관계, 16, 38	어머니의 역할, 16, 21
가족 역사, 40, 친2	역경, 2, 44
개종, 44	영감, 44
경전 공부, 22	예수 그리스도, 2, 친4, 친12
교회 역사, 21	
금식 헌금, 친10	우정, 26
기도, 26	자기 수련, 15
대제사, 40, 43	준비, 12, 16
맥케이, 데이비드 오, 친6	지도력, 21
모범, 12	지혜의 말씀, 32
방문 교육, 25	청녀, 16
병 고침, 44, 친12	초등학교, 친4
보호, 44, 친14	평화, 2
봉사, 43, 친14	표준, 8, 15, 26, 32, 38
선교 사업, 8, 12, 34, 친13	
선택의지, 8, 38	
성전 및 성전 사업, 25, 40	



#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몇** 해 전에 아내와 저는 가족과 함께 유명한 테마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배를 한 차례 탔는데 이 배는 큰소리를 내며 폭포 아래를 향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탑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도록 한 다음 아래쪽 물가에 멈추어 섰습니다. 배가 떨어지기 직전에 저는 심오한 진리가 적혀 있는 조그만 표지판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몇 마디가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 말은 그 놀이의 주제뿐 아니라 이 필멸의 생을 잠시 거쳐 가는 우리의 여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은 경험의 학교, 시험의 기간입니다. 역경을 견디고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곧 질병, 사고, 죽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옛적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라는 율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sup>1</sup> 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sup>2</sup> 행동이 경건하고, 재물이 번성하였던 읊은 어느 누구라도 파멸시킬

수 있었던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친구들에게 멸시당하고,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만신창이 된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리”는 다그침을 받았습니다.<sup>3</sup> 그러나 그는 이런 유혹을 물리쳤으며 그 고귀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sup>4</sup>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sup>5</sup> 읊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통과 환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살았던 사람은 없었으며, 인류 역사에 소란, 파괴, 그리고 참혹함이 없었던 시기 역시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가 모질게 꼬일 때,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질문하고픈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을 다스릴 수가 없을 때 흔히 자책을 합니다. 때때로 터널의 끝에 있는 빛이 보이지 않고, 밤의 어둠을 깨뜨릴 새벽이 오지 않을 것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의 고통, 산산조각 난 꿈에 대한 실망, 그리고 사라진 희망으로 인한 절망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성경상의 탄원을 함께 하게 됩니다.<sup>6</sup> 우리는 버림 받고,



옛날의 읊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신성한 확언과 소중한 약속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려 줍니다.

상하: 샘 블러; 오른쪽: 사진 BUSINESS PHOTOGRAPHY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및 그녀의 아들과 가졌던 경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잘될 것이라는 진리를 잘 보여 줍니다.**

비탄에 잠기고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시편에 있는 이런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sup>7</sup>

삶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지나면서 이를 견디어 냈고, 결국 이겨 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각 사람 그리고 모두에게는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간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이내라는 하늘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곤 합니다.

다음 어려움 중 어느 것이 여러분께 친숙하게 들리니까?

- 신체 장애를 지닌 자녀
-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 직장에서의 정리 해고
- 자신이 지닌 기술이 쓸모 없게 됨
- 방탕한 아들이나 딸

- 정신적 및 정서적 질병
- 사고
- 이혼
- 학대
- 과도한 부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모든 선한 은사를 주시는 분과 떨어져 있다고, 심지어는 격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이 걸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신성한 확언과 소중한 약속은 우리를 고통의 바다, 눈물 젖은 베개로부터 하늘을 향해 들어올려 줍니다.<sup>8</sup>

여러 갈래의 길과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필멸의 생의 진로를 따라 걸을 때 그런 위안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확신은 보통 번쩍이는 표지판이나 큰 음성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의 언어는 온화하고, 조용하고, 마음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달래 줍니다.

필멸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주님께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항상 잘될 것이라는 점으로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의 경험은 이런 진리를 잘 보여 줍니다. 극심한 기아, 가뭄, 배고픔의 절망, 고통,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sup>9</sup>

엘리야는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sup>10</sup>

그녀는 있을 법하지 않은 약속에 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sup>11</sup>

이제 역사의 장면들을 앞으로 빨리 돌려 목자들이 양 떼와 함께 있다가 이러한 거룩한 선언을 들었던 특별한 밤으로 가 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sup>12</sup>

베들레헴에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받았던 큰 선물이었으며, 무기보다도 더 강하고 가이사의 동전보다도 더 가치있으며 계속 남아 있게 될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래 전에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어, 아기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스러운 기록은 소년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밝혀 줍니다.<sup>13</sup> 훗날에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sup>14</sup>

나사렛에서 시작되어 세대를 내려오면서 그분의 뛰어난 모범, 그분의 환영의 말씀, 그분의 신성한 행위가 전해져 옵니다. 그것들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인내, 슬픔을 감당하게 하는 힘, 죽음에 직면할 용기, 그리고 인생을 이겨 낼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혼란, 시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신성한 인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져 왔습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주어진 교훈들이

고통을 겪는 마음에 빛과 길을 가져다줄 때 그것들은 거리의 장벽, 시간의 흐름,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젯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이 앞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 기도하여 이르시되”<sup>15</sup>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sup>16</sup>

그분께서는 세상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큰 희생, 얼마나 큰 고뇌를 견디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한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황금 같은 젊은 시절  
여름 대지는 환희를 노래하며  
영혼은 즐겁고 마음은 기쁘다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알지 못하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저녁 하늘  
어딘가에 숨어 있네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동산—  
젯세마네 동산에 ...

낮설은 시내 건너 어둑한 골목 아래로  
우리의 산산조각 난 꿈 위에 세워진 다리  
안개로 뒤덮인 세월  
한없는 눈물의 샘 너머  
그 동산은 누워 있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피할 수 없으리  
우리가 지나온 길 지나게 될 모든 길은  
젯세마네를 지나게 되리<sup>17</sup>

지상에서 구세주의 사명이 끝날 시간이 급히 다가오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작은 묘비들은 그 아래 잠자고 있는 아기들뿐 아니라, 한 어머니의 신앙과, 진리와 생명의 영원한 원리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갈보리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반응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다음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sup>18</sup>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sup>19</sup> 위대한 구속주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 속에서 나온 다음 말씀은 역사의 흐름 속을 거침없이 달려와 오늘날 우리 영혼에 위안과 확신, 치유, 확실성을 가져다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sup>20</sup> 부활은 모두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앙으로 가득 찬 편지를 로렌스 엠 힐튼에게서 받았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신앙으로 개인적인 비극을 견디어 낸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92년에 로렌스의 조부모이신 토마스 힐튼과 사라 힐튼은 사모아로 갔고, 그 곳에 도착한 후 토마스는 선교부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자 아기를 데려갔고, 두 아들은 그 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세 자녀 모두 사모아에서 숨졌으며, 1895년에 힐튼 가족은 자녀 없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족의 친구였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그들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21년, 많은 나라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는 세계 여행의 일환으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셨던 맥케이 장로는 사모아에 들렀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는 당시 미망인이 된 힐튼 자매에게 그 세 자녀의 무덤을 직접 찾아가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맥케이 장로가 사모아에서 그녀에게 써 보낸 편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힐튼 자매님

“1921년 5월 18일 수요일, 늦은 오후에 내리쬐는 태양빛이 커다란 코코넛 나무 위를

어루만지고 있을 때, 다섯 명의 일행이 조그만 파갈리이 공동 묘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 자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자매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왔습니다.

“무덤과 묘비는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 저는 그 장소를 둘러싼 돌담 밖에 서 있으면서 ... 제가 빼껴 적은 것을 편지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넷 힐튼

출생: 1891년 9월 10일

사망: 1892년 6월 4일

‘우리 아기 제니야, 편히 쉬거라’

“조지 에멧 힐튼

출생: 1894년 10월 12일

사망: 1894년 10월 19일

‘잠시 평화롭게 잠을 자려무나’

“토마스 해롤드 힐튼

출생: 1892년 9월 21일

사망: 1894년 3월 17일

‘언덕 위에서 편히 쉬거라, 편히’

“작은 세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매님이 오래 전에 사모아에서 젊은 어머니로서 겪었던 모습들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 그 작은 묘비들은 그 아래 잠자고 있는 아기들뿐 아니라, 한 어머니의 신앙과, 진리와 생명의 영원한 원리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힐튼 자매님, 자매님의 어린 자녀들은 침묵 속에서 참으로 힘차고 효과적으로 거의 30년 전에 시작되었던 자매님의 고귀한 선교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를 돌보아 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한 그들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로 죽어가는 이의 눈을 감겨 주었으며,  
사랑의 손길로 그 작은 팔다리를 가지런히 놓았네.  
이제 낯선 손길로 초라한 무덤들이 장식되었으며,  
이방인에 의해 명예롭게 되고, 또 이방인에 의해 애도되네

“토파 소이푸아(안녕히 계십시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이 감동적인 기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 평강”을 슬퍼하는 마음에 전해 줍니다.<sup>21</sup>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자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그분의 예언자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을 인도하십니다. 진리에 대해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구세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짐을 감당하며, 우리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

주

- |                    |  |
|--------------------|--|
| 1. 욥기 5:7.         | 13. 누가복음 2:52.   |
| 2. 욥기 1:1.         | 14. 사도행전 10:38.  |
| 3. 욥기 2:9.         | 15. 마태복음 26:36~39.   |
| 4. 욥기 16:19.       | 16. 누가복음 22:42~44.   |
| 5. 욥기 19:25.       | 17. Ella Wheeler Wilcox,<br>“Gethsemane”, Al Bryant 편,<br>Sourcebook of Poetry,<br>3권(1968년), 2:435. |
| 6. 예레미야 8:22.      | 18. 누가복음 23:34.  |
| 7. 시편 30:5.        | 19. 누가복음 23:46.  |
| 8. 여호수아 1:5.       | 20. 마태복음 28:6.   |
| 9. 열왕기상 17:8~9.    | 21. 빌립보서 4:7.  |
| 10. 열왕기상 17:10~14. |  |
| 11. 열왕기상 17:15~16. |  |
| 12. 누가복음 2:10~11.  |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사에 나열되어 있는 어려움들을 살펴본다. 덧붙일 만한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한다. 그런 다음 기사의 처음 세 단락을 소리내어 읽고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몬슨 부대관장이 인용한 성구나 이야기 중 한두 가지를 함께 살펴본다.

2. 네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설자,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8~16절에 나오는 주님, 엘리야, 그리고 과부의 말을 소리내어 읽게 한다. 몬슨 부대관장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던 경험을 나눈다.

3. 힐튼 가족의 이야기와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의 편지를 함께 읽는다. 시련을 견디고 평안을 찾도록 구세주께서 어떻게 도와 주셨는지에 관한 경험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권유한다.

# 힘든 결정



항상 옳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결과는 항상  
여러분에게 최선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 생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감과 지시를 얻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을 행하겠다고 지금 결정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희생처럼 여겨지거나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전생애에 축복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여러분이 자신감을 얻도록 돕고자 하는 소망으로 저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 주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셨을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봉사하고, 결혼을 한 후, 아내와 저는 미국 동부로 이사하여 거기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특이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저는 면접을 본 다음 기술자로서 새롭고 흥미로운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잠수함용 원자력 설비의 설계와 개발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그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속삭임에 따르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기와 신앙을 행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11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저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부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름을 전하면 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그녀가 “해롤드 비 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받아야겠군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훗날 교회 대관장이 되신 리 장로는 그날 밤에 저를 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뉴욕 시에 계셨고 저는 수도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 그분을 만났고, 접견을 통해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하이먼 리오버 제독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가능한 빨리 그분에게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부장의 부름을 그에게 설명하고 따라서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을 때, 그는 상당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되풀이하기 힘든 말을 하며, 책상에 있는 서류함을 부순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스코트, 자네가 이 국방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자네를 대신할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만 일 년이 필요할 걸세. 따라서 자네는 떠날 수 없네. 둘째, 자네가 간다면, 조국에 반역자가 되는 걸세.”

제가 말했습니다. “남아 있는 두 달 동안 저는 후임자를 훈련시킬 수 있고, 조국에는 어떤 위험도 없을 겁니다.”

더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가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자네를 찾지 않을 걸세. 자네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자네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시는 원자력 분야에서 일할 생각도 하지 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독님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십니다만, 방해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제독은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는 수행인을 보냈고, 저는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 업무를 맡을 다른 사람을 지정했고 저는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 저의 어려웠던 결정

제가 직장을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선교부장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다호 주의 아이다호폴스 지역에는 교회 회원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의 직업은 핵 프로그램과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가슴에 이런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에 생업이 달려 있는 무고한 누군가가 손해를 볼지도 몰라”

제가 기도하고 깊이 생각했을 때 찬송가 “의의 일 하세”가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가사의 일부분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의의 일 하세 보람 있으리니”, 또한 “하나님 보호해 주시리니”와 같은 그 찬송가의 다른 가사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77장)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에 저는 제독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비서의 표정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손에 몰몬경 한 권을 들고 갔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얏게나, 스코트, 그게 뭐냐? 나는 자네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별 짓을 다해 보았네. 자네가 들고 있는 게 뭐지?” 그 다음에 매우 흥미롭고 잔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읽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연락하기를 바라네. 자네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걸세.”

### 여러분의 힘든 결정

젊은이로서 여러분도 인생에서 내려야 할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결정은 선교사로 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질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선교 사업이 특권이며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주님의 가르침, 특히 회복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신을 잇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일입니다.

선교부장으로서는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는 동안 젊은 남녀들에게 그들을 엄청나게 성장시켜 줄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복음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선교사들은 남을 축복하는 일이 무척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선교사들의 자발성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셨으며, 나중에는 결혼 생활을 함께할 멋진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련, 수고,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뛰어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었으며, 직업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항상 옳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시고, 그 결과를 따르십시오. 결과는 항상 여러분에게 최선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고, 또 시작하기에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편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옳은 것을 위해 일하셨던 때를 후회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후심한 비판을 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 영감을 받아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표준을 지키겠다고 결정할 것을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어린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신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어 한결같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그 결과로 여러분의 합당한 꿈이 이루어지거나 더 좋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제가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꾸준히 행할 때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얻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

기사의 일부를 2001년 3월호 리아호나 10~17쪽에 있는 "의의 일 하세"에서 발췌.

## 선교 사업을 결심함

### 이사이 리몬 토레스

어렸을 때 우리 가족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나이가 차면 선교사로 나가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항상 네라고 대답했다. 12세가 되었을 때 나는 집사 직분에 성임되었다. 지도자들은 이제 7년 후에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은 너무 먼 훗날의 일 같았다.

내가 교사에 성임되었을 때, 앞으로 있을 선교 사업에 관해 말하는 것이 더욱 잦아졌다. 내가 제사에 성임되었을 때는 훨씬 더 잦아졌다.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형들이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를 좋아했다. 하지만 2년 동안이나 나의 가족과 멀리 떨어져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가고 싶다는 강한 열의가 없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을 깨달았다.

누나인 프랜시스카에게 그 문제에 관해

말하자, 누나는 내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이사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하겠는데, 해 주고 싶은 말이 두 가지 있어. 첫째, 선교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정말 언제든지 영을 지닐 수 있단다.

둘째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커지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야. 주님께서 너를 도와 주실 거야."

나는 누나의 조언에 따라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강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2000년 4월 6일은 내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내게는 결정의 날이었다. 나는 그를 배웅하러 공항으로 갔다. 그가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나는 같은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해 어떤 흥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운 느낌이 아니라 평화의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은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19세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확고한



소망을 가졌다.

나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최근에 귀환했다. 그 곳에서의 세월은 내 인생에서 최고였다. 비록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려울 때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주님의 영은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게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들을 사랑한다. 물론경이 참되다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살아 계신 예언자와 회복에 관한 내 간증은 커졌다. 내가 봉사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방언의 은사가 실재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는 내가 영어로 말하고 가르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내가 큰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 ■

이사이 리몬 토레스는 멕시코 마타모로스 스테이크 마타모로스 제1와드의 회원이다.

#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접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윌리엄 디 오스왈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제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 집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는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어느 일요일에 조금은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러 사무실에 가 있었을 때 친구들이 보바라고 부르는 열세 살 된 청소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바는 블라디보스토크 제1지부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저의 사무실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올가 비아체스라브나 드르야구노바 자매가 함께 왔습니다. 이 자매는 영어를 아주 잘했으며 그 소년은 자기를 위해 통역을 해 줄 것을 그녀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보바는 영어를 전혀 못했으며 저는 러시아어를 조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보바는 언청이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고아였습니다. 그 이후 출생시의 결함은 어느 정도 고쳐졌지만 그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 주는 한 훌륭한 여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그는 멋진 모습으로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소년만큼이나 집사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는 복음의 참됨에 관해 간략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동안 보바가 러시아어로 말하면 올가 자매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녀는 보바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지원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근엄한 얼굴로 “그가 몇 살이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보바에게 다시 물었고, 보바는 “열네 살이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엄함을 유지한 채 제가 말했습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열아홉 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이도 알고 있겠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지만 지원서를 먼저 내고 싶어 안달입니다.”

지원서를 작성해 모스크바를 거쳐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내야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원서를 보내야 할 때를 지부장이나 제가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44명의 선교사들 사진이 걸려 있는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세 살 소년을 선교사로 추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선교사 지원서가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보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제가 선교사들을 접견하는 사무실에 보바가 와 있기 때문에, 그가 열아홉 살이





# 만

일이 어린  
집사가 선교  
사업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5년  
후에 이 소년처럼 준비를  
갖추고 있는 또 다른  
2,000명의 러시아인  
집사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되었을 때 받게 될 질문을 연습 삼아 그에게 해서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현재 합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보바가 마치 제가 관리하는 전임 선교사라도 된 것처럼 합당성 질문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가, 남녀 관계에 관련된 질문은 너무 시기 상조라 생각하여 재치있게 넘어 갔습니다. 게다가 저는 올가 자매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보바는 나이에 비해 두 배나 되는 지혜를 가지고 적절한 대답으로 제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선교부장에게서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질문을 보바가 미리 장로들 중 한 사람에게 알아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저는 보바에게 6개월마다 다시 찾아와서 접견 과정을 반복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6개월 뒤에 있을 접견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게 알려 주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올가 자매를 통해 이제는 그가 영어를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접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단다.”

그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을 세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접견을 끝내려 할 때, 보바는 올가 자매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물어 보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의 성숙한 어느 장로도 그런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할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생각한 다음에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매일 경전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셋째로 영어 공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편하게 영어로 보바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마음에 관한 질문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마지막 제언은 솔직히 조금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영어반에 참석하라고 제언을 했지만, 그는 어두워진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외출을 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매일 학교 영어 수업을 더 열심히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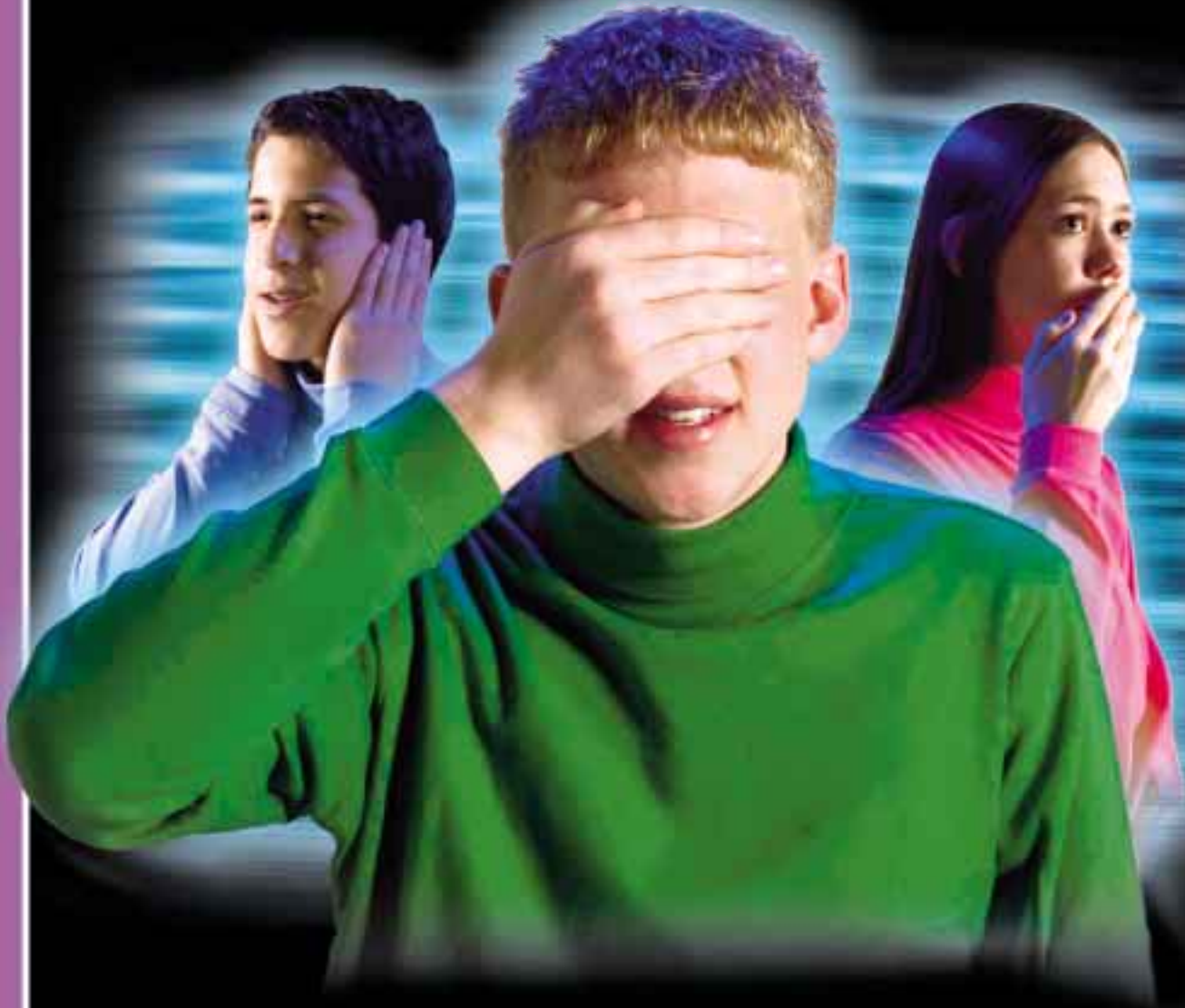
나중에, 예매가 끝난 후 복도에서 집사들을 보았을 때 저는 보바에게 다음 접견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말을 반복해 보고 싶으니 물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방법으로 해냈습니다. 그 후 무척 놀랍게도, 지부에 있는 다른 집사들도 모두 그 놀라운 말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집사가 저를 바라보며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접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모범의 힘이었습니니다! 입을 열어 그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겠다는 한 사람의 기쁨은 제가 우리 선교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경험하도록 애쓰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들 집사들은 참으로 완전히 이르는 길에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서, 만일 보바처럼 준비하고 있는 2,000명의 어린 집사들이 러시아에 있어 보바가 열아홉 살이 되어 선교 사업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5년 후가 되었을 때, 과연 러시아라는 이 광대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선교 사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물론 그 답은 얼마서 57장에 있습니다. 힐라맨이라는 예언자에게는 2,000명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의 모친에게서 배운 그들의 커다란 신앙과 헌신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21절 참조)

이런 보바를 자신의 용사들 중 한 명으로 데리고 있는 선교부장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 무료 차단 프로그램



자기 수련 - 이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거나,  
듣거나 또는 생각할 수도 있는 부도덕한 것을 막아 주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사이야서 4:30 참조.)

#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녀들을 강화함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본부 청녀 회장

“우리는 청녀들이 훌륭한 아내, 어머니 및 주부가 되고 싶어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몇**년 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에게 최근의 연차 대회가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열여섯 살이었던 딸 아이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영감에 차 있고 예지가 뛰어난 예언자와 지도자들이 모성을 지지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후에 그 아이는 이 일은 자신의 삶에서 혼란스런 걱정거리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전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서도 듣질 못했어요. 세미나리에서도, 청녀회에서도, 학교에서는 더더욱 아니고, 오직 집 이외에서는 듣질 못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경험이 다른 청녀들과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여성들이 모성의 덕성을 높이 찬양하고 청녀들이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전에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약 20여 명의 월계반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목표가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은 박사 학위를 받는 것과 같은, 교육적인 목표를 말했으며, 다른 청녀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마침내 한 소녀가 부끄러운 듯이 어머니가 되겠다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소녀들은 다른 목표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시 한 소녀가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나자 나머지도 그렇다는 목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소녀가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것을 시인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안전한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말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녀에게 뭔가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를 말할 때 상처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비이기적인 마음을 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며, 더 매력적인 다른 목표들을 제쳐 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녀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원리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성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청녀 주제에 있는 “가정과 가족을 강화할 준비를 한다.”라는 새로운 구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지도자로서 청녀를 위해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우리는 청녀들에게 현재 그들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가장 문제가 많은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은 강화될 필요가

**우**리는 청녀들이 가족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관계를 깊게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sup>1</sup> 우리는 청년들이 오직 도움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리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본부 임원들 가운데 몇 분은 부모가 교회에서 저활동 회원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분에게는 현명한 청년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가족과 함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족은 일요일에 오락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표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수영장에 가게 되면, 그녀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수영장에 따라가기는 했으나 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청년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남동생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동생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린 뒤, 파티에 참석 중인 동생을 데려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동생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에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러한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사랑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우** 리는 가사  
기술이  
세상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청녀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을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은  
영이 깃드는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종종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 형제 자매들과의 우정과 친밀한 유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 십대 소녀가 학교에서 한 무리의 소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그녀를 활동에 참여시키고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녀의 슬픈 마음을 달래 주었습니다.

이 모든 예들은 청녀가 자신의 가정과 가족들을 강화한 예입니다.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성약을 지키는 방법이며, 성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약속된 영을 지니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청녀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의 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2. 우리는 청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할, 세상적이고 영적인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청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세상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만물은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9:34 참조)

가사 기술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걱정됩니다. 사회가 가정 주부를 잃을 때, 우리는 거리의 노숙자와 흡사한, 정서적 노숙자를 만들어 내며, 낙담, 마약, 부도덕, 자기가치 상실 등과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 냅니다. *The Family in America*(미국의 가족)라는 출판물에서, 브라이스

크리스틴슨은 거리의 노숙자 수는 “미국의 노숙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 가정이라는 말이 단순히 육신의 거처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노숙자라는 말이 단순히 그러한 거처가 없는 것을 나타냈는가? ... 가정이란 단순히 거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책임, 안전 및 소속감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정은 단지 필요한 지붕과 따뜻한 난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혼 관계, 부모의 책임 및 가족의 책임에 의해 성결케 된 장소이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곳으로서, 사랑스러운 보살핌과 따뜻하게 인정 받는 일이 약속되는 장소이기도 하다.”<sup>2</sup>

그러므로 우리는 요리, 바느질, 예산 세우기, 아름답게 꾸미기 등을 포함하여 가사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가사 기술이 영예로운 일이며 세상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청녀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정을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곳에 있기를 원하게 하고, 영이 깃드는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일요일 공과, 상호 향상 모임 및 개인 발전 기록부 등은 모두 이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는 시간과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월계만 고문으로 봉사할 때 경험한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돌보는 청녀들은 일년 후면 집을 떠나 자신의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독립할 준비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 생활하기, 대학 진학과 직장 채용 시험 응시, 과자 이외의 음식 만들기 등과 같은 필요 목록에 따라, 우리는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청녀들은 장차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출석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부 영적인 기술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순수한 우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청녀들이 새로 배운 기술을 나눔으로써 가정의 분위기가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장차 자신이 꾸려갈 가정을 축복할 실질적이고 영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 3. 우리는 청년들이 훌륭한 아내, 어머니 및 주부가 되고 싶어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청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도구는 모범과 우리의 진지한 말입니다.

저는 고결함과 기쁨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영감에 찬 많은 청년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월계반 고문이 보여 준 강력한 모범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저활동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교회에서 충실하게 키웠습니다. 저는 부모가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쉽게 감동 받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으며, 지도자들의 모범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그녀는 교사들과 더불어 급식과 가정의 밤과 같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사와 어머니가 되는 일에서 기쁨을 얻는 가장 훌륭하고 지속적인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와 주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며, 매사에 그 말씀대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개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막 청소를 끝낸 화장실의 깨끗한 냄새를 좋아하셨으며, 제게 읽고 쓰는 법, 바느질과 요리하는 법, 사랑하고 봉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영과 영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절제 등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저도 자신의 삶에서 그와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갈라디아서 5:22~23 참조) 어머니의 모범은 계속해서 매일 저를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주부로서 제가 느끼는 큰 기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쁨을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 4. 우리는 청년들이 가족과 가족의 가치를 모독하는 세상에 용기를 갖고 맞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최근 들어 사탄이 가족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동성애, 낙태, 동거, 이혼, 부도덕, 폭력 등은 어디를 가나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고 강요당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놀라기는 해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디모데후서 1:7)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회복된 그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느낍니다. 저는 가족에 관한 선언문에 간결하게 언급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에 의해 힘을 느낍니다. 선언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능적인



# 모

범과 진지한 말을 통해, 우리는 청년들이 아내, 어머니, 및 주부가 됨으로써 얻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특성이다 ...

“...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선언한다.”

낙태: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동거: “남편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혼: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부도덕: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여기[는] ...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폭력: “우리는 ...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sup>3</sup>

저는 이 진리로 인해 강화되는 것을 느낄 뿐 아니라,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분은 교회를 인도하도록 예언자와 사도를 주시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과 영원한 교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의 청년들은 가족의 신성을 더럽히는 세상에 맞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5.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일의 영원한 책임과 특권을 강조하고, 그들이 모두 가정을 꾸미고 이 생애에서 자녀를 가질 기회가 있든 없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년) 대관장은 굳건한 하나님의 여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일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분들은 교회에 들어올 세상의 많은 훌륭한 여성들(그들에게는 종종 내적인 영성을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입니다. 교회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로움과 예지를 나타내고, 세상의 여성들과는 달리 독특하고 다르게 보이고 행복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그러한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sup>4</sup>

우리는 자신이 영원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방법에서 독특하고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되고,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과 영원한 교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의 청년들은 가족의 신성을 더럽히는 세상에 맞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양육하는 여성의 역할을 하도록 거룩하게 임명되었습니다.

제 사촌인 캐리는 행복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여성이었으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독신 자매로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에 교통 사고로 사망했지만,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기 전에 그녀가 한 마지막 선행은 조카들에게 줄 스크랩북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훌륭한하신 청년 지도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화하는 방법을 알도록 영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한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에 대해 값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리와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호소력 있게 하고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도자로서 현재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일도 이 세상을 구하는 데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한 부름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주부로서의 부름에 대한 외투를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이 영원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범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도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얼마나 중대합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여성이 될 자매들을 적절하게 훈련시키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도구로 쓰이는 훌륭한 특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2004년 3월에 열린 청년 공개 모임 말씀에서 수경 인용.

**주**

1.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0쪽.
2. “HomeLess America: What the Disappearance of the American Homemaker Really Means”, *The Family in America*, 2003년 1월, [www.profam.org/pub/fia/xfia\\_1701.htm](http://www.profam.org/pub/fia/xfia_1701.htm).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4. “The Role of Righteous Women”, *Ensign*, 1979년 11월, 103~104쪽.



#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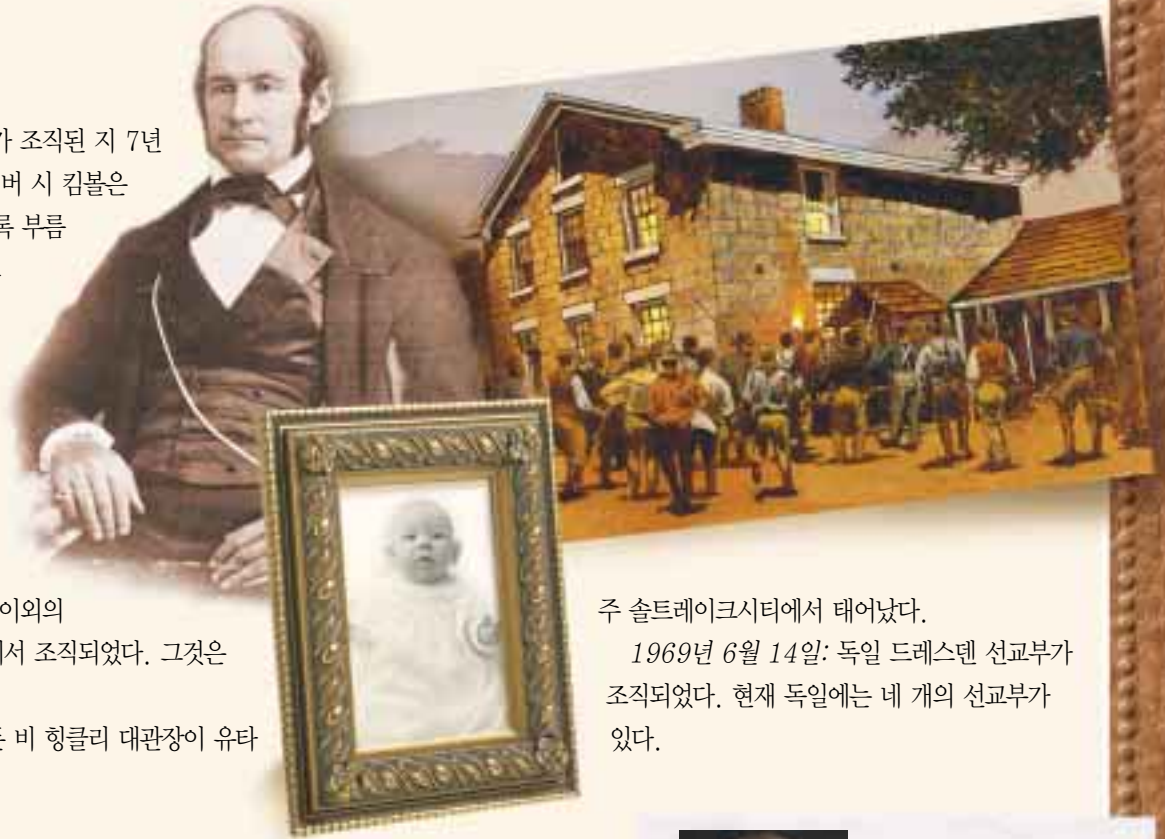
## 6월에 일어난 일

1837년 6월 4일: 교회가 조직된 지 7년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히버 시 김볼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는 해외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 받은 최초의 사람이다.

1844년 6월 27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이 카테지 감옥에서 폭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1895년 6월 9일: 미국 이외의 최초의 스테이크가 캐나다에서 조직되었다. 그것은 앨버타 스테이크로 불렸다.

1910년 6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1969년 6월 14일: 독일 드레스덴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현재 독일에는 네 개의 선교부가 있다.



## 어머니와 딸들이 역할을 바꾸다

여러분이 하루만 어머니와 역할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뉴질랜드의 마누레와와 푸케코헤에 있는 청년들은 역할 바꾸기 토론을 위해 그렇게 했다.

역할 바꾸기에서, 어머니들은 12세 이상의 소녀들은 원할 경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발표를 한 후에 어머니와 딸의 듀엣이 있었다.

뉴질랜드 프랭클린 시장인 헤더 멜로니는 토론회의 심판관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딸들이 대중 앞에서 말씀한 용기를 칭찬하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높은 표준과 가치관,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있어 그들이 보여 준 존경심에 대해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지도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짧은 과정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마태복음 4:19)고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안전은 그분의 예언자, 즉 교회 대관장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이들로 나의 지도자를 삼으리라”,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일곱 번째 단락.



위부터: 히버 시 김볼의 사진; 그림: 윌리엄 모간, 카테지 감옥에 모여든 폭도들; 어린 고든 비 힝클리의 사진; 크리스티나 스미스의 발 사진; 제임스 이 파우스트의 사진; 부사스 포토그래피

# 질 의 응 답

“저는 매일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배우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리아호나의 대답

**이** 미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전을 건성으로 읽어 온 경우에, 좀더 영적인 영양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 제안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취하)[십시오.】(니파이이서 32:3) 말씀을 기쁘게 지키기(취하기) 시작하는 것(말씀으로 잔치를 여는 것)은 경전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고 가르침과 간증을 전해 주는 영을 초대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니파이일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니파이삼서부터 시작하여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리와 성약 133편을 읽고 재림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혹은 주제별 색인(Topical Guide)이나 경전 안내서에서 소망이나 회개 등의 흥미있는 주제를 찾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느 장을 처음 공부할 때,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정도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살았으며 그들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평화로운 영의 영향과 다른 많은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십시오.

한 가지 흥미있는 주제를 공부하고,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고, 각주를 확인하십시오.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공부하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질문, 그리고 관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니파이 백성과 레이먼 백성의 전쟁 기사를 읽을 때,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셋째, 읽으면서 노트에 메모를 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서, 언제 했는가? 공부를 위해 자신의 간증, 통찰, 질문, 주제 등을 간략하게 적어 둡니다.

넷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읽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 교회 지도자, 혹은 세미나리 교사에게 여쭙어 보십시오. 경전에 있는 학습 도구들, 특히 주제별 색인(Topical Guide)이나 경전 안내서를 이용하십시오. 또한 성구에 있는 각주는 전후 참조 성구를 알려 주고 대체될 수 있는 단어나 쉬운 단어를 말해 줍니다.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자 신앙에 충실함은 주제별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비워 두십시오. 학교 숙제와 소설책을 읽는 것은 첫 번째 우선 순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평안함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영감을 주고,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영을 불러들여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문제에 대해 주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알게 해 주어 더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영이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예언자들과의 약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은 모로나이

장군을 만날 것입니다. 다음날은 모세를 만납니다. 예언자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우리와 나눌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 독자들의 대답



먼저 경전을 읽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리타 에이 투아니, 18세, 사모아 파고파고  
마푸사가 스테이크 메세파 2와드

경전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독이나 주일학교 회장과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한 장 한 장 경전을 설명해주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교재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욤므 델라뜨르, 18세  
프랑스 릴르 스테이크 모스크롱 와드

매일의 경전 공부를 더욱 유익하게 하기 위해, 저는 어려움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별한 주제를 찾아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읽은 것을 현재 나의 상황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캐머론 리, 17세, 유타 스페니시 포크 이스트 스테이크  
메도우라크 제1와드

경전 읽기에는 우리가 읽은 것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일은 그냥 읽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펠릭스 에우시, 17세,  
가나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아부라 와드



저는 열심히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읽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개인적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영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성신을 통해  
온갖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서 10:5 참조)

소니 넬슨 시 앵 이세, 16세,  
필리핀 오지미즈 지방부 시티 지부

저는 경전을 읽을 때 세미나리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 책들은  
장소의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을 알려 주며, 흥미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저의 경전 공부는 그 교재를 갖고 공부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몬 알렉산드레 데 올리비에라, 16세,  
브라질, 상파울루 타보아오 스테이크 하르딤 타보아오 와드



저는 처음 경전을 읽기 시작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최소한 한  
장을 읽고 기도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생각한 후에, 저는 읽은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에카테리나 투파노바, 12세, 러시아 로스토브나 도누 선교부  
샤크티 지부

매일 읽으십시오.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경전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저의  
세미나리 교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각주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다.”



줄리 던포드, 15세,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 스테이크 나사렛 와드

저는 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읽고 또 읽습니다. 저는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읽은 것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마릴리아 로드리게스 데 올리비에라, 18세,  
브라질 벨로 호리존테 스테이크 반데이란테스 와드



저는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나 마침내 매일  
저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30분 내지  
한 시간씩 경전을 읽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훌륭한 공부 습관을 얻는 것은 선교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일러 하우슬리 장로, 21세, 브라질 브라실리아 선교부

저는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것을 찾고, 찾은 답을  
생각하고, 느낌을 기록하고, 기도로 마친 다음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켈리 포터, 17세, 아이다호 블랙풋 스테이크 로스 제2와드

리아호나와 독자들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  
명칭, 사진 등과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7/05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cur-liahona-imag@ldschurch.org

2005년 7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질문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물문경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성전 의식의 회복과 성약을 기뻐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124:40, 42:**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이다 … 나는 이 집에  
관한 모든 일(일) … 요셉에게 보여 주리라.”

### 왜 우리는 성전 예배를 기뻐하는가?

**조지 큐 케넌(1827~1901)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모든 성전은 …  
지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권세와 경건을 증가시키며,  
우리를 위해 강한 권세로 하늘을 움직이며,  
영원한 하나님들의 축복이 우리 위에  
내려지도록 간구합니다.”(*Millennial Star*,  
1877년 11월 12일, 743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의  
구속주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희생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성전에서 대리 사업에 참여할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 주지 않는 한  
발전할 수 없는, 장막 저편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의미에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 받은 특권을  
더 잘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성전

참석은 여러분의 성품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생기는 이기심의 껍질을 벗겨 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성결케 하는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미칠 것입니다.”(“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5쪽)

### 의식과 성약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쁨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성약이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맺은 성약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잃지 않게 되며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알려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전 성약을 지키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안목과 능력의 한계 저편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줍니다.”(“Prepare for  
Blessings of the  
Temple[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함]”, *Ensign*,  
2002년 3월호, 21쪽)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남편과 저는 우리 선교부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한 지역으로 여행을  
하여, …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접견을 마친 후 남편과  
제가 차를 타고 밀림 속 모랫길을 따라  
돌아가는 길에, …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두 자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코  
성전 추천서를 사용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그것을 받기 위해 왕복  
29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성도들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믿었습니다. ‘즉시 또는 자주  
성전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3쪽) ■



# 지구의 중심에서

에콰도르에 있는 청소년들은 지구의 중심에서 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훌륭한 일들을 누리고 있다. 복음은 십대들이 구세주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잡도록 돕고 있다.

마빈 케이 가드너  
교회 잡지

반대쪽: 키토에 있는 미타드 델 문도(세상의 중심) 산을 방문함. 왼쪽부터: 혼 토바르, 크리스티안 리사노, 디아나 플로레스, 사라이아 모야, 루이스 미겔 메사, 알레한드로 플로레스, 마리아 알레한드라 카베차 데 바카, 그리고 이바네사 로메로.

**북**극이나 남극이 똑같이 먼 곳, 한 쪽 발은 북반구에 그리고 한 쪽 발은 남반구에 대고 서 있을 수 있는, 지구의 중심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아마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며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적도에 위치한 국가 에콰도르에 사는 말일성도 십대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발 모두 주님의 편에 있으려고 한다.

### 키토에 있는 청소년들의 힘

수도인 키토는 전통적인 식민지 시대의 건축에서부터 현대의 고층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다 있는 도시이다. 복잡한

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삶의 유혹을 피하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안내 지도가 된다.

“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옷을 마음대로 입도록 허용했습니다. 친구들이 단정하지 않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을 하나 갖다 줄게.’ 저는 그 아이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한 권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옳다고 생각했으며 더 이상 옷을 단정하지 않게 입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과 나누어서 우리가 훌륭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라고 12세 된, 마리아 알레한드라 카베차 데 바카는 말한다.

13세 된 알레한드로 플로레스는, 알고 있는 것 못지않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지난 일요일에, 할머니가 제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이용하여 복장 표준에 관한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 사촌들 몇 명과 저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습관이

에라도르의 환주한 도시인 키토에 있는  
청소녀들은 복음이 인생을 향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더 이상 혼자가 아님

키토에 사는 17세 된 혼 토바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오랫동안 친구들이 하지는 대로 했으며 부모님과 별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신뢰를 잃을 경우, 그것이야말로 외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감독님과 접견을 했는데, 감독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더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공과를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촌들과 저의 옷 입는 방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공과와 모범은 사촌들이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주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14세 된 크리스티안 리사노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봉사이다. “봉사를 하는 것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것들이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15세 된 이바네사 로메로는 나쁜 말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따라 자신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나쁜 말을 할 때마다 1페니씩 벌금을 내기로 하자.” 며칠 후에 그녀는 4달러를 모았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바는 부자가 될 거예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이용하여, 이바네사는 친구들에게 깨끗한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했다. “그들은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녀는 모범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친구들이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작은 일은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15세 된 사라이아 모야는 한 여학생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무신론자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이아의 표준과, 그녀를 비판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녀가 그들에게 가까이 충실하고자 하는 것을 칭찬했다. 사라이아와 그 여학생은 복음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라이아는 그녀에게 물몬경을 한 권 주었으며,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 사라이아의 친구는 함께 교회에 가기도 했다. “어제는 제 친구가 청년 활동에 왔으며,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친구는 제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모범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일이 년간, 17세 된 루이스 미겔 메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아 온 친구들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제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합니다. 저는 많은 비판을 하는 친구들 앞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야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제 표준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옛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 희생을 치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오타발로에 있는 교회에서. 앞줄(왼쪽부터): 라우라 코르도바, 헤니퍼 산타크루스, 타미아 모레타, 뒷줄: 사샤 말도나도, 다비드 타비, 헤수스 루이스, 아르만도 아레야노 및 올란다 산티안. 오른쪽: 헤니퍼가 청년편을 자랑스럽게 달고 있다.**



도와 주셨습니다.”

17세 된 라켈 알론소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습관적으로 옳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속으로는 진정으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참으로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기는 했지만, 청년로서 복음에 충실하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큰 희생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오타발로의 생활은  
대도시에 비해 조용하지만,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엄마가 현재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평생 구세주께 가까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간증은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제 위에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그분은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 오타발로에서의 기도의 힘

오타발로 산골짜기에서의 생활은 키토처럼 바쁜 생활은 아니다. 오타발로에 있는 많은 말일성도들은 온 세상으로 팔려 나가는 천으로 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제품들을 짜거나 수를 놓는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집에서는 키추아어를 사용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가는 데 걸어서 한 시간 이상씩 걸린다. 청소년들은 학교에 갈 때 교복을 입지만, 교회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타발로의 생활은 다른 곳에 비해 더 조용하지만 삶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청남 청년들은 주님께 가까이 머물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들은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다.

“엄마에게 직장이 없었을 때, 저는 엄마가 빨리 일자리를 찾으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엄마는 이틀만에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라고 12세 된 헤니퍼 산타크루스는 말한다.

13세 된 타미아 모레티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어려움에 처하자 아주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저는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제 어린 남동생은 지금 한 살이 되었으며 현재는 동생과 어머니 모두 건강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현재 열다섯 살인 라우라 코르도바가 열 살이었을 때, 그녀는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몰몬경과 교회가 참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15세 된 사샤 말도나도는 집에 물이 차도록 내린 무서운 폭우로 두려움을 느꼈던 때를 기억한다.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을 때,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물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몇 분 후에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

기도는 또한 극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14세 된 헤수스 루이스는 천을 짤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말한다. “때로는 천을 짜는 방법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분은 항상 도와 주십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학교 공부에도 적용된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분은 제 생각을 열어 주시고 배운 것을 다시 알려 주십니다.”라고 16세 된 아르만도 아레야노는 말한다.

17세 된 올란다 산티안은 그녀가 드린 가장 진지한 기도는 “언젠가 가족이 인봉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지켜야 할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17세 된 다비드 타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 친구들은 담배와 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들은 늘 제게 함께 하자고 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반에는 또 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 과야킬에서 친구를 찾음

과야킬은 분주한 항구 도시이다. 새로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은 도시 한 부분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밤에는 찬란하게 빛난다. 또 다른 찬란한 빛은 여러분이 이 곳에 오게 되면 느끼는 따뜻한 우정이다. 그 우정은 격려와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진정한 우정이다.

17세 된 가브리엘라 아기레가 처음 과야킬로 이사해 왔을 때,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저는 이 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멀리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저는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14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는 잘 단합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의 참된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입니다.”

16세 된 타티아나 알라르콘은 이렇게 말한다. “와드의 청년 청년들이 너무나 잘 단합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일은 훌륭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 이상입니다. 우리는 마치 친형제 자매들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 줍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과야킬에 있는 성전 마당에서. 위(왼쪽부터): 캐더린 에스파냐, 타티아나 알라르콘, 에스테파니아 고메스, 그리마네자 롤단 및 가브리엘라 아기레. 위: 올메도 롤단, 하레드 리베라(서 있는 사람), 알렉스 아란시비아 및 호세 올리바레스.

아름다운 성전은 분주한 과야킬 항구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 준다.



##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님

“어느 날 밤 저는 교회에서 열리는 파티와 교회 회원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는 파티 중 어디에 참석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 파티에 가고 싶지 않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열리는 파티에 갔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모두가 술을 마셨습니다. 기분이 몹시 안 좋았으며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하려고 했던 성신은 깨끗하지 않은 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10분쯤 지난 후에 오빠에게 전화해서 다른 파티에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리는 파티와 친구들을 통해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친구들이 다른 파티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들은 그 파티가 그저 친구들이 모이는 단순한 모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분위기나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쓸모 없는 무익한 것입니다.”

최근에 양로원을 방문했다. “저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 다시 올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 주는 자리에서, “어린이들은 우리가 준비한 활동과 그들에게 준 선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라고 14세 된 캐더린 에스파나는 말한다.

“우리는 함께 모여 파티와, 활동과, 무용을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모여 주님의 일을 합니다. 감독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와드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제 동반자는 제 여동생이며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들을 격려합니다. 선교사들이 십대가 있는 가족을 가르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문하고, 우정을 나누며,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청소년 개종자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이미 친구를 갖게 됩니다.”라고 17세 된 에스테파니아 고메스는 말한다.

청소년 숫자가 적은 와드에서도 청남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활동의 손길을 펼친다. 14세 된 호세 올리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와드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청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남들을 방문할 때에는 장로 정원회에 있는 형제님과 함께 갑니다.”

“저는 집사 정원회 회장으로서 우리가 모두 유혹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도록 집사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그날 성찬식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은 정원회 회원들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것은 와드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17세 된 알렉스 아란시비아는 말한다. “무릎을 꿇고 성찬 축복을 할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승인하시는 느낌입니다. 일요일에 해야 할 책임을 생각하는 일은 일주일 동안 제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 줍니다.”

18세 된 올메도 룰단은 선교 사업을 우정의 자연스런 결과로 보고 있다. “침례를 받고 며칠 안 되어, 저는 리아호나에서 침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청남이 전임 선교사들을 도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날 선교사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독님은 저를 와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르셨으며,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통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4세 된 올메도의 여동생인 그리마네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부름이 없지만, 우정 증진을 통해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14개월 전에 저도 교회에서 새로운 회원이었으며,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소녀가 오면 저는 그 옆에 앉아 그녀와 친해지려고 하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녀가 저와 함께 청녀 모임에 가도록 권유합니다.”

## 닥치는 모든 일에 잘 대응하도록 준비함

키토에 사는 17세 된 디아나 플로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청소년으로서, 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을 좀더 가까이 살펴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디아나와 여러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도록 가르치는 복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며 경전, 복음, 성전, 가족 등과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 이 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닥쳐오는 모든 일에 잘 대응하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 지혜의 말씀

지킴으로써

## 얻는 축복



저는 어떤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저의 순종의 표시로 이 계명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마사유키 나카노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북아시아 지역

**저**는 열다섯 살에 짐레를 받기 전에 복음을 공부하면서 1833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신 지혜의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저는 어떤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저의 순종의 표시로 이 계명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사업계에서 판매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은 나이트클럽과 술집에서 가능성 있는 고객을 접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은 많은 사람의 직업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술이 사람의 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에 따라 그것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일과 접대에 바치다 보니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지나친 알코올을 섭취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직장에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자신의 경력을 망치기도 합니다.

저는 스물여덟 살 때, 대기업의 무역부 매니저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며 술, 커피,

차, 또는 담배 등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커피를 사양했습니다. 그 매니저는 제 뜻을 받아들이고 제 신앙에 대해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객과 사업을 의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그들을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결코 저에게 술집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고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디너 쇼에 초대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를 이용하여 자주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 업계에서는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제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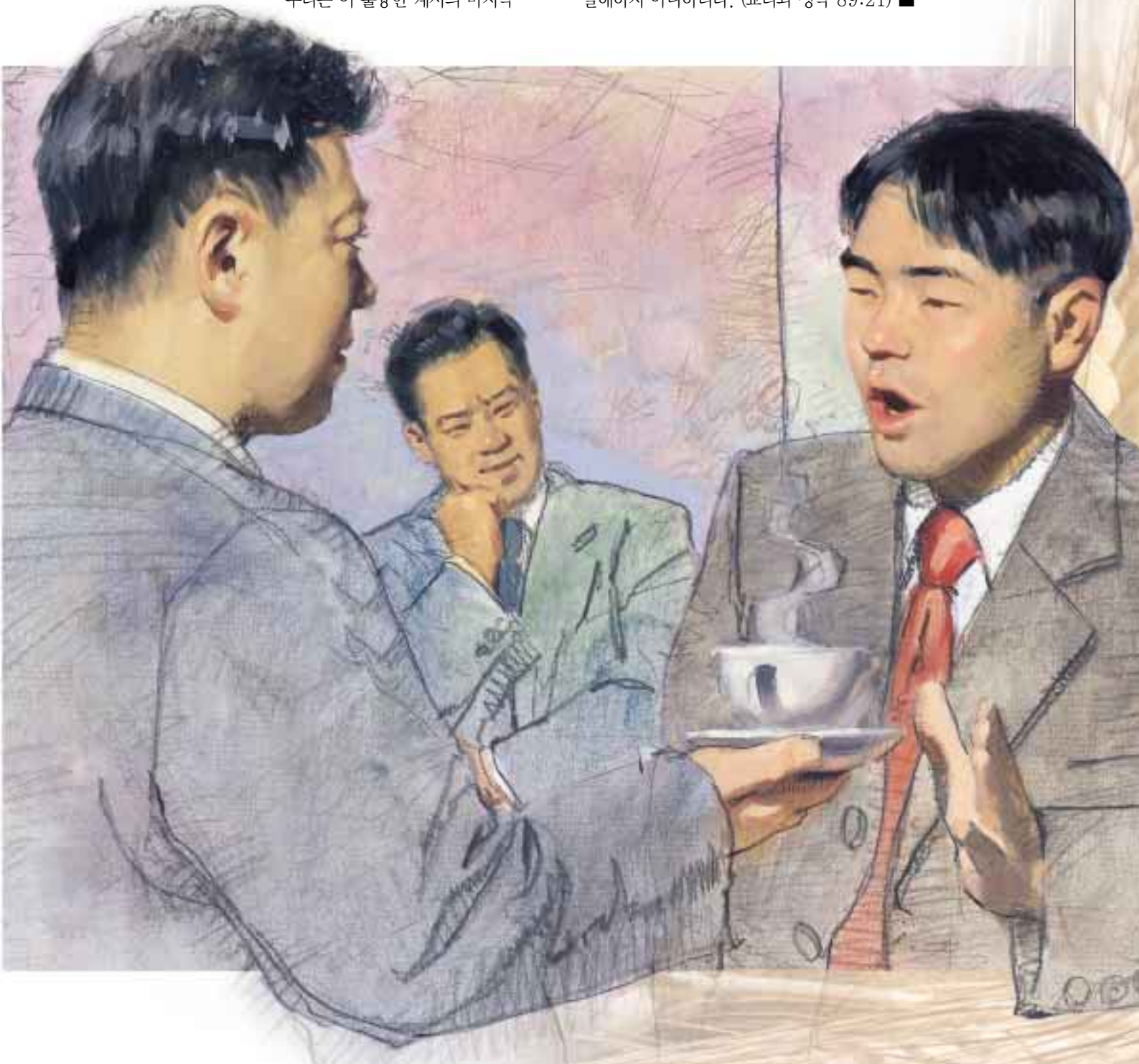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0)

지혜의 말씀에 대한 저의 간증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훌륭한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21) ■



# 선교 도구가 되는

## 가정의 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많은** 은 말일성도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좋은 선교사가 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가족 관계가 더욱 좋아졌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맛보게 할 수 있었던 몇몇 회원들이 여기에 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 유일한 회원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가족과 나누기를 원했지만 가족들이 자신들을 개종시키려는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불확실한 마음도 나를 괴롭혔다. 주님께서 내가 가족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 년이 넘는 동안 나는 가정의 밤을 갖자는 제안을 하기가 너무 두려웠다.

두려움으로 맘을 졸이던 끝에 마침내 나는 나의 가족을 가정의 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놀랍게도 가족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들 사이는 전보다 더 좋아졌다.

가정의 밤을 통하여 나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세 살짜리 조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에게 복음과 간증을 전할 수 있었다. 모든

가족과 함께 몰문경을 읽고, 그들에게서 그들이 읽은 것을 믿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른다.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우리의 경전 공부를 돕기 위해 우리 집으로 초대되었다.

가장 큰 축복은 일이나 학교나 기타 활동의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이 매주 월요일에 함께 모임을 하며, 주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을 내겠다고 약속한 사실이다.

*아린 프라이스, 온타리오 토론토 스테이크, 돈 밸리 와드*

###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도구

나는 아직도 침례 받은 날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침례 받은 얼마 뒤에 나는 선교사들로부터 당시 알고 지내던 몇몇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보다 적절한 새로운 친구들을 찾으라는 제안을 듣고 낙담했다. 그들의 말은 18세의 고등학교 졸업생인 내게는 가혹한 것 같았지만 그들을 신뢰했으므로 나는 그들의 권고대로 했다.

내가 교회 친구를 사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선교사들이 곧 나를 몇몇 와드 회원들의 가정의 밤에 참여시켰다. 나는 나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쉼

형제님 댁에 갔다.

단순한 가정의 밤이었지만 편안한 분위기의 쉼퍼 형제님 댁은 안식처가 되었으며,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쉼퍼 형제님 댁에서의 수십 번의 가정의 밤 이후에 나는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다.

나의 아버지는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쉼퍼 형제님



# 선

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침례를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매주 쉼퍼 형제님  
가족과 함께했던 가정의  
밤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성** 신에 관한  
가정의 밤  
공과를 하는  
동안 매우 강한 영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가족에게 맡기고 선교사로 떠났다. 선교사로 나간 지 꼭 4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침례를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쉐퍼 형제님 가족은 내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가정의 밤에 모시고 갔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아버지는 더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개종하게 되었다.

루벤 페레스, 테네시 멤피스 노스 스테이크, 코르도바 와드

#### 영을 느끼기 위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중 9년을 저활동 회원으로 지냈다.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했고 이제 일곱 살이 된 딸애도 갖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들에게 교회를 다시 소개했고, 선교사들이 우리 집으로 오기 시작했다. 나는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편은 장로들과 친구가 되었고, 아는 것은 거의 없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각 토론은 대략 한 주가 걸렸는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첫 번째 토론이 있던 지 9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선교사들이 남편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러 왔던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남편이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가정의 밤 교재를 주었고, 다음 월요일이 되자 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앉아 성신에 관한 공과로 나의 첫 번째 가정의 밤을 시작했다. 남편은 그 주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조용히 경청했다. 그날 밤 아주 강한 영의 영향력으로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 즉 교회의 참됨을 확인해 주는 성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자신의 간증을 전하면서 영이 자기에게 증거해 주었고 자기가 그것을





## 가정의 밤 약속

전 교회에 걸쳐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월요일 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합니다.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족 활동  
및 그와 유사한 행사를 계획합니다.  
전세계의 모든 가족이 그 한 가지 일만  
실천해도 세상의 가족들을 단합시키는  
일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가정의 밤",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3쪽.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영원하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이  
우리 마음 속에 지퍼졌던 것이다.

일주일 후에 남편은 침례를 받았고,  
일 년 후 우리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우리는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모임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의 밤임을  
안다.

엘리자베스 듀스 드 메르니스,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노스 스테이크, 레시카 와드

###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새 남편과 나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가정의 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았다. 남편의 어머니를 초대하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가정의 밤을 열기가 어려웠다. 그 당시  
74세이셨던 시어머니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꽃집에서 일하셨으며, 직장과 집을 오가는 일상의 생활에서 거의  
벗어나는 일이 없으셨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오기를 좀 주저해 하셨지만 지금은 월요일 밤을 고대하신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음악을 즐기면서 매우 가깝게  
되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개종을 원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주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한 분의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읽었고 우리 모두는 영을 느꼈다.  
어머니에게 *엔사인(Ensign)*을 보여 드릴 기회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셨다. 우리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교회 비디오를 시청하셨다. 우리는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행하고 있다.

어느 가정의 밤을 위해 나는 시어머니께 공과를 가르치도록  
부탁드렸다. 그녀는 젊은 날의 자신의 사진과 남편이 아기였을  
때의 사진을 가져오셨다. 나는 삼촌,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눈에 어린 행복감이 내 마음에 매우 감동을 주었다. 나는 가정의

밤을 가지라는 계명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복음에 관한  
것들을 배우셨다. 그분이 살아 계실  
동안 교회 회원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강화되고  
우리의 사랑이 커졌음을 알고 있다.

대니 진 스티븐스, 버지니아 헨팅턴 웨스트 스테이크  
로간 와드

### 일곱 살짜리 선교사

어느 월요일 밤 늦게까지 남편과  
집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일곱 살짜리 우리 아들, 세르히오가

나타나 말했다. “이런, 가정의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빠 엄마는 통 관심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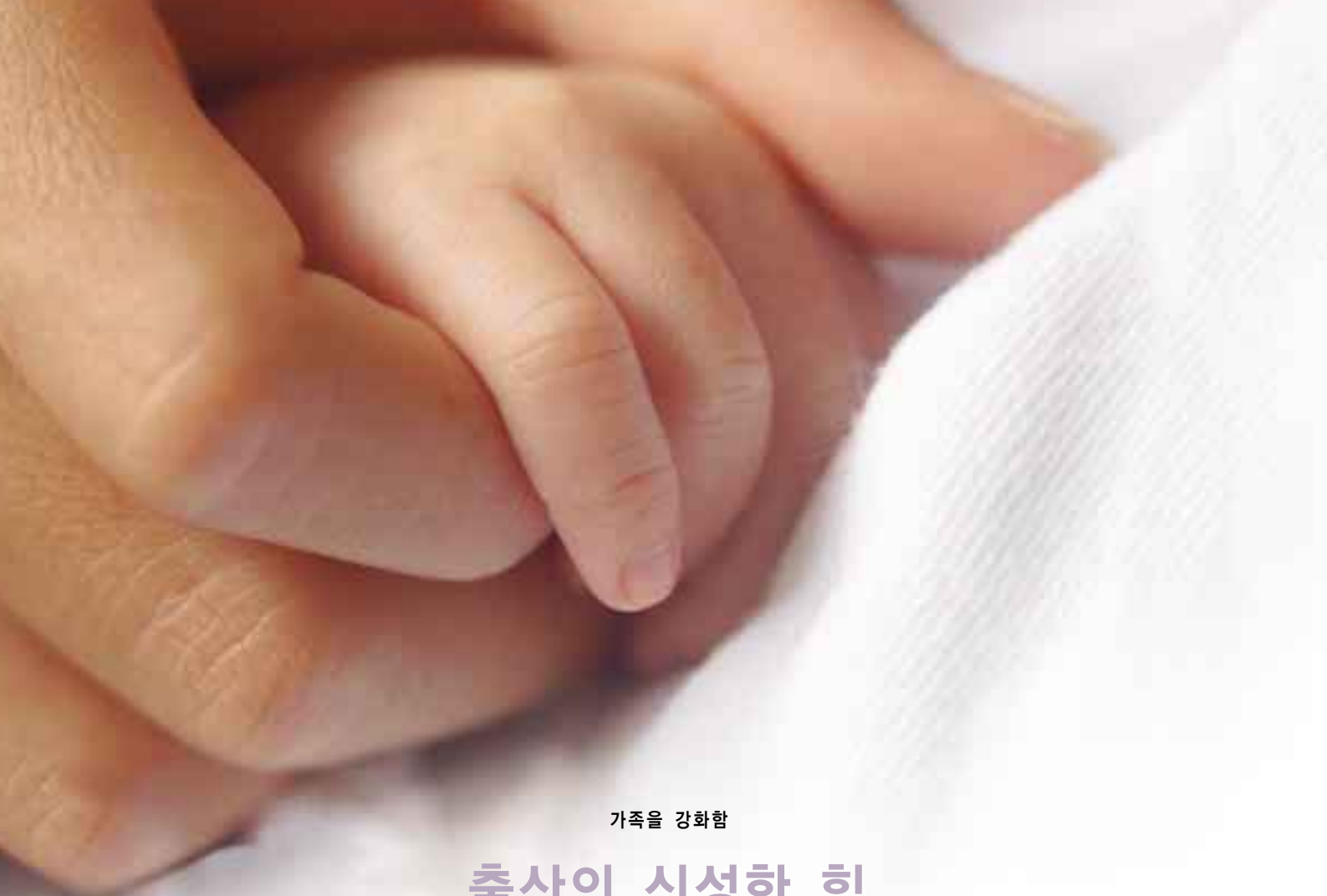
남편은 늦게 집에 왔었다. 남편은 우리가 너무 바빴으며, 자기  
전에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피곤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일을  
계속했다.

몇 달 후, 우리는 세르히오가 어린이 물문경을 혼자서 읽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며, 비록  
늦었을지라도 가정의 밤을 열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동의를 했다.

거실로 들어가자 세르히오는 심각하게 이미 “혼자 하는 가정의  
밤”을 시작했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으며 이제 공과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아들이 첫번째 시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날 밤 우리 아들은 가정의 밤의 중요성을 간증하는 우리의  
강력한 선교사였다. 남편과 나는 우리가 종종 기꺼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원리를 가르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으로  
그것은 혼자서 하는 가정의 밤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놓칠 뻔했던  
좋은 경험이었다. ■

세실라 로사다, 페루 리마 마랑가 스테이크, 마랑가 와드



가족을 강화함

## 출산의 신성한 힘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력을 주는 연재 기사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다.”<sup>1</sup>

### 권세와 계획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전세에서 주어진 계획에 따라 아담과 이브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로서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이생으로 오는 첫 번째 영들을 위해 육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신성한 창조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생명들에 불을 밝히는 권세입니다. 이 은사는 결혼의 신성한 결속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의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육신은 들어오는 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영혼이 이생에서 태어납니다.

“이 권세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가족의 생활 속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그 권세는 사실상 이 필멸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

“창조의 권세는—또는 출산의 권세—계획의 부차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육신에... 창조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생명들에 불을 밝히는 권세입니다.

계획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계획이 붕괴될지도 모릅니다.”<sup>2</sup>

### 도덕 의지와 순결

계획을 붕괴시키는 것이 물론 사탄의 목표이다. 출산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탄의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이다. 테렌스 디 울슨은 “인간의 성”에서 이렇게 썼다. “성은 궁극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면,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어쩔 수 없는 맹렬한 힘인 것처럼 우리의 문화에 나타나 있다. 만약 대중 문화가 옳다면 성은 너무나 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가 통상적인 빈번한 성의 표현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한다. 실로 ... 대중 문화는 인간을 성의 필요와 느낌의 희생물로 본다.”<sup>3</sup>

경전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친다. 리하이는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들이 타락에서 구속될 것임에 영원토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마지막 큰 날에 있을 형벌의 법을 제하고는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느니라 ...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26~27)

이러한 순결의 문제에서 우리는 육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소위 “필요”라는 것은 도덕성에 있어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어떤 선택과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순종과 영적인 삶을 택하거나 속박이나 불행, 또는 영적인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 순종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봉사할 당시 순결을 택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경전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와 영체로 구성된다.(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면서(거기에 육체라는 말을 넣어 보십시오) 속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가운데서 ‘내 인생이야, 또는 더 나쁘게 ‘내 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고린도전서 6:19~20)라고 말했습니다.”<sup>4</sup>

“둘째, 인간, 즉 남녀 사이의 애정 행위는 그들의 마음, 소망, 인생, 사랑, 가족, 미래 등, 그들의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합을 상징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그러한 총체적인 ... 결합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결합, 즉 그들의 마음과 정신, 그들의 모든 날들 및 모든 꿈들과 함께 결혼 성약 안에서 주어지는 영구성과 친밀성과 함께 옵니다. ... 그러나 또한 하나라고 자처하며, 신체적 상징을 나누고, 애정 관계를 함께 하면서도, 그 외의 모든 것들, 즉 책임 관계에서 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회피할 때 오게 되는 도덕적 괴리감도 볼 수 있습니다.”<sup>5</sup>

셋째, “성 관계는 남녀 사이의 상징적인 결합은 물론 영혼의 결합입니다. ...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과 신의 결합, ... 하나님과 이 넓은 우주에 생명을 주신 모든 권세들과 함께하는 드물고도 특별한 순간을 위한 결합을 상징합니다. ... 분명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대들을 결정하는 이 은사를 존중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거는 신뢰는 두렵게도 흔들립니다. ... 우리는 출산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 한 가지 장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sup>6</sup>

주님의 교회의 영감 받은 예언자들이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 것은 당연합니다.”<sup>7</sup> ■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Why Stay Morally Clean”, Ensign, 1972년 7월, 111쪽.
3. “Chastity and Fidelity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in David C. Dollahite, ed., Strengthening Our Families: An In-Depth Look at the Proclamation on the Family(2000년), 51쪽.
4. “Of Souls, Symbols, and Sacraments”, i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7~1988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1988년), 78~79쪽.
5. “Of Souls, Symbols, and Sacraments”, 79~80쪽.
6. “Of Souls, Symbols, and Sacraments”, 82, 84쪽.
7.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 대제사 정원회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의 다섯 번째 부분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멜** 기세택 신권 대제사에 성임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며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소지한 자들의 본보기가 바로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 드리게 하나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히브리서 5:1, 4~6) 구세주께서도 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의 모든 대제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임무는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살며,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자비로우신 속죄와 구세주의 복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 간략한 역사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지상에 충만한 복음이 있을 때면 언제나 주님은 그분의 사업을 감리할

지상의 성역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감리 대제사였다. 대제사의 책임은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다.





대제사의 주된 책임 중 하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 자격으로 그들은 “주님과 감독, … 그룹의 지도자들을 대표한다.”

보좌들, 감독과 두 보좌들, 축복사 및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 직분에 성임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sup>1</sup>

### 대제사의 책임

“대제사의 권리와 책임은 감리하는 것으로서 장로의 모든 권능을 지닌다.(교리와 성약 107:10 참조) 형제들은 그들이 스테이크장단이나 고등평의회나 감독단에 부름 받을 때, 또는 다른 사유로 스테이크장이 결정할 때, 대제사에 성임된다.”<sup>2</sup>

대제사는 신뢰 받기에 합당해야 한다. 신권의 이 직분에 성임된 자들은 신앙이 깊고 정직하며 고결해야 한다. 이들은 신뢰 받을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해야 하며 어떤 환경 하에서도 복음을 옹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대제사의 주된 책임 중 하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 자격으로 그들은 “주님과 감독, … 그룹의 지도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그들이 방문하는 가족의 개개인을 지원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 그들은 가족 개개인에 대한 우정과 존경심을 키우고, 이들에 대해 진솔한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 … 가정 복음 교사는 교회에서 회원들을 가장 먼저 도울 수 있는 자원이다. 그들은 가족의 필요 사항과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제사들을 부르셨다.

- 아담, 에녹, 노아,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및 그밖의 의로운 사람들이 대제사 직분에 성임되었다.(앨마서 13장, 교리와 성약 84:6~17; 107:41~53 참조)

- 모세 시대 이후에 주님께서는 몇몇 충실한 자들을 제외하고 지상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거두어들이셨다.

- 물몬경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자들이 대제사들이었다.(앨마서 8:23; 30:20~23 참조)

- 이 지상에서의 성역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감리 대제사였다.(히브리서 3:1 참조) 대제사장으로서 구세주께서는 영원한 희생을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히브리서 9:11~12 참조) 그분은 계속하여 그분의 교회를 감리하고 계신다.

-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대제사 직분의 첫 성임은 1831년 6월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교회 대회에서 있었다. 그 당시 23명이 대제사로 성임되었다.

- 한동안 각 와드에서 대제사 정원회가 조직되고 회장단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1877년 브리감 영 대관장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스테이크장에게 이 정원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지시했다.

- 1956년에 스테이크장이 각 스테이크의 대제사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 1975년 12월, 대관장단은 와드 대제사 그룹들이 스테이크 대제사 정원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스테이크장은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스테이크장단의 두 보좌들은 정원회에서 보좌로 봉사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와드 대제사 그룹 지도자들은 스테이크장의 지시 아래 그 역할을 한다.

### 대제사 정원회의 임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제사의 임무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통치, 단합, 진보 및 발전에 관한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대제사 정원회 안에는 스테이크장과 두

원문: 그림: 해리 앤더슨, 성서사도를 성임하시는 그리스도, 오른쪽 모퉁이 사진 촬영: 존 부크

방법에 관하여 그 가족의 가장과 상의한다. 그들은 회원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아프거나, 외롭거나, 이사하거나, 또는 다른 필요 사항이 있을 때에 도움을 준다.”<sup>3</sup>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모든 대제사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앞에서 교훈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범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의로운 교사가 되어야 하며, ...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경험에서 얻은 유익한 것들을 전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교회에서 오랜 연륜을 쌓은 ... 경험으로 그들은 그들이 관련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지혜를 행사해야 합니다.”<sup>4</sup>

###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대제사의 역할

그룹 지도자와 정원회 회원들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데에 모범을 보이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그들은 회원들을 도와 자신의 성전 의식을 반도록 준비시키며, 또한 회원들이 죽은 친족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반도록 격려한다. 장로 정원회 회장과 대제사 “그룹 지도자는 죽은 자들을 구속하는 것에 관련된 교리, 원리, 축복들이 신권회와 가정 복음 교육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쳐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원들을 격려하여 성전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한다 ... 감독의 지시 아래 대제사 그룹 지도자는 와드의 성전 및 역사 사업을 책임진다.”<sup>5</sup>

대제사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감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경험이 없는 형제들, 특히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그들은 다른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 회원을 돌아보는”(교리와 성약 20:42) 자들이다. 대제사는 각 와드나 지부 및 스테이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에서 교회의 사명을 돕고 있는 안정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그들은 가정과 가족의 축복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후손에게 의로움의 본보기를 확립한다. ■

### 주

1. In Conference Report, 1907년 4월, 5쪽.
2.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1998년), 160쪽.
3. 교회 지침서, 제2권, 167쪽.
4. In Conference Report, 1908년 4월, 5~6쪽.
5. 교회 지침서, 제2권, 164, 262쪽 참조.



# 형제애의 불

러렌 포터 곤트  
교회 집지

밋치 던포드는 샌티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센터 제1와드의 대제사 그룹 일원으로서 그는 그 곳에서 거의 11년간을 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대제사 그룹은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선교 사업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과 다른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서로가 신권의 부름을 존중하도록 돕는 데서 오는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2003년 10월 26일, 일요일 밤이었다. 샌티 스테이크의 대제사들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대부분의 주민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의 공격을 받았다. 거의 24시간 동안 시속 80에서 110킬로미터로 부는 강풍이 30미터에 이르는 불바다를 만들었으며, 백여 채의 집이 탔고 13명이 사망했다.

밋치 던포드는 한 손에는 정원용 호스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집 뒤 언덕에 혼자 서 있었다. 조금 전에 아내 캐시와

다섯 명의 자녀들을 호텔에 데려다 준 뒤였다. 대피 명령이 철회되자 그는 집을 둘러보러 돌아갔다.

“불길은 높이가 1.2미터, 너비가 9미터나 되었습니다. 불길은 두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조용했어요. 나는 이 불을 나 혼자 정말 끌 수 있을지 의아해 하며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라고 던포드 형제가 말한다.

한편, 크리스 올레드 스테이크장은 쌍안경을 들고 스테이크 센터 꼭대기에 있었다. 불길이 던포드 형제 집을 향해 올라오자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감정이 조금 더 격해진 목소리로 던포드 형제가 말한다. “나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정원회 형제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함께 각기 삽을 들고 한 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격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응당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4분 후에 첫 번째 불길이 잡혔다.

“우리는 불을 내려치고 그 위에 흙을 던졌어요.”라고 아버지인 랜들 쉘퍼 감독과 함께 왔던 열다섯 살의 스티븐 쉘퍼가 말한다.

첫 번째 불길이 꺼지자 두 번째 불길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 불도 격퇴했다.

뉴스 사진 기자가 불을 끄고 있는 그룹에게로 올라가서 그 그룹의 한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서 나온 몇 명의 남자와 소년들임을 보고 놀랐다.

던포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신권 형제님들이 우리 집을 구해 준 것은 무척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은 남자들과 소년들이 도우러 나타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권 정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나의 십일조 타이어

사라 웨스트브룩

**남**편과 나는 최근 직업이 바뀌어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남편은 교육을 더 받기 위해 미국 군대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봉급이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는 간신히 살아갔으며 결국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빚을 지지 않으려고 신용 카드를 잘라 버렸으며, 저축한 돈도 모두 써 버려서 비축 식품에 의존해 살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었고 문자 그대로 신앙에 의존해 살고 있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쌓인 청구서 더미를 보며 정신이 아찔함을 느꼈고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난 십일조를 지불하지 말까 하는 유혹을 받았다. 나는 “주님보다 내가 돈이 더 필요해. 내가 내리는 금액으로는 스테이크 센터의 전기세도 낼 수 없겠지만 내게는 엄청 소중한 쓰일 거야.”라고 생각 했다.

돈이 쓰일 수 있는 여러 곳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성구가 내 머리에 떠올랐다. “사람이

**수**리공은 참을성 있게 내게 못을 보여 주며 왜 타이어 수리가 불가능한지를 설명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말라기 3:8) 나는 십일조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잘 해결되겠지. 나는 십일조를 수표에 적어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 우편으로 부쳤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몇 가지 불일이 있어 나가야 했다. 자동차로 갔다가 타이어 하나가 거의 완전히 내려앉은 것을 보자 말문이 막혔다. 좌절감을 갖고 나는 근처 수리점으로 차를 몰았다.

핑크 난 것을 수리하는 데 몇 달리가 들 것이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보살피 주실 것을 간구했다. 몇 분이 지나자 수리공이 금전 등록기 쪽으로 오라고 불렀다. 그는 타이어에 못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 못이 수리될 수 없는 식으로 박혀 있다고 말했다. 타이어를 교체해야 할 것이고 비용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들 것이었다. 나는 “제가 한번 볼게요.”라고

말했다. 수리공은 참을성 있게 내게 못을 보여 주면서 왜 수리가 불가능한지를 설명했다.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그에게 가능한 가장 값싼 타이어로 교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대기실로 돌아와 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새 타이어를 살 형편이 아니었지만 차는 있어야 했다.

몇 분 후에 수리공이 다시 등록기로 오라고 나를 불렀다. 그는 타이어의 잠김







돌기 나사를 풀 열쇠가 없다고 설명했고, 나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하면서 자기네 가게에는 우리 차 타이어를 빼낼 적당한 도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가게를 추천해 준 다음 무료로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 주고 나를 보냈다.

나는 차로 돌아가 정신없이 울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뭐든 올바르게 했고, 십일조도 냈고, 일 년 치 비축도 했고, 빚에서 벗어나려 노력도 하고 있고, 매주 교회도 나가고 있었다. 왜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나는 차를 몰아 다른 가게로 가서 재빠르게 점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는 가장 값싼 타이어를 골랐고, 나는 대기실로 갔다. 영원히 호명될 것만 같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곧 듣게 될 말을 두려워하면서 천천히 등록기로 걸어 갔다.

“다섯 번이나 물속에 넣어 구멍을 찾아보았지만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아직 쓸 만해요. 교체할 것까진 없겠어요.” 나는 한참 동안 점원을 응시했다. 내 눈으로 못을 보았고, 거기에 분명 못이 있었다. 나는 점원에게 감사했고, 그는 또다시 돈을 받지 않고 나를 돌려보냈다.

우리는 새 근무지로 전근되었고 그 이후로도 약 만삼천 킬로미터를 그 타이어로 다녔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심을 안다. ■

사라 웨스트브룩은 엘 파소 텍사스 마운트 프랭클린 스테이크 엘 파소 제1와드 회원이다.

## 영에 귀기울임

마크 파레데스

**주** 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혼자서 여행하면서 나는 주로 연결되는 간선 고속 도로로 가는 긴 우회로 대신 시골 고속 도로를 달리기로 했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나는 한밤중이 되기 전에 친구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길게 뻗어 있는 고속 도로를 달리는 차는 오직 내 차 한 대뿐이었다. 나는 지루함을 달래려고 라디오를 켰다. 좋아하는 곡조에 따라 노래할 때 나는 라디오를 끄고 ... 귀를 기울이라는 분명한 영의 속삭임을 들었다. 처음에는 황량한 도로에 혼자서 조용히 차를 몰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속삭임을 무시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더욱 강렬해졌고 나는 마지못해 라디오를 끄고 깊숙이 앉아서 주님께 조용히 이제 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곧바로 나는 즉시 속도를 줄이라는 세 번의 속삭임을 더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더욱 강해져서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 느낌에 순종하면서 세 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충분히 천천히 감속시켰다.

조금 후에 나는 표시가 없는 90도의 경사 커브와 마주쳤다. 어둠 속이라 대처할 수가 없어 나는 커브를 지나 깊은 구덩이가 바라보이는 산마루 벼랑 끝에 멈추었다. 떨면서 나는 차의 손상을 점검하러 차 밖으로 나왔다. 차는 완전한 그대로였지만 앞 범퍼가 절벽 너머로 불쑥 나와 있었다. 내가 더 빨리 달렸더라면 난 분명 구덩이 속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하거나 죽었을 것이 틀림 없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인생의 “라디오들”, 즉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휴식 시간을 가졌다. 나는 얼마나 많이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보다 우위에 두었는가를 자문해 보았다. 비록 내가 집에서나 길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음악을 끄고 귀를 기울이는 규칙적인 기본 자세를 취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

마크 파레데스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산타 모니카 스테이크산타 모니카 제2와드 회원이다.

# 내 마음의 편한 느낌

마리나 페트로바

**나**는 러시아에서, 서로 사랑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가족 속에서  
성장했다. 나의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으며, 우리는 친할머니이신  
아나스타샤 바실예브너 우스타브스코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모자에  
다는 예쁜 꽃을 만들거나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부엌에서 바쁘게 지내셨다.  
할머니는 온갖 종류의 책을 다 읽으셨지만  
특히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으셨던 것이  
기억난다. 할머니는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할머니가 그분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그분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곤 하셨다.

할머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면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의 왕국을  
상속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의 나의 삶은 많은  
시련과 경험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와  
같았다. 나는 항상 할머니의 단순하고도  
진지한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셨는데 난 그때마다 맘이 설레곤

**침** 레 받는 날,  
나는  
여전히

심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차서  
입김이 보일 정도였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았다.



했다.

1993년 6월에 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외가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친구가 함께 영어 공부를 하자고 권유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본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한 젊은 여자가 받았다. 그녀는 다음날 정오에 오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타트야나였다. 공부를 마친 후 우리는 그녀에게 차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자고 권했다. 우리는 “난 차나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심히 놀랐다.

“왜요?”

“난 몰몬이에요.”

“몰몬이 뭐예요?”라고 내가 물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에요. 두 사람도 흥미가 있으면 일요일 아침 10시에 우리를 보러 오세요.”

그녀는 주소를 적어 주었다. 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척 알고 싶었다.

그 주일이 천천히 지나가고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다. 모임은 음악 학교에서 열렸다. 몇몇 젊은 청년들이 입구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처음 온 사람인 줄을 알고 그들은 나를 예배당으로 안내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나는 소외감이 들었다. 하지만 개회 찬송은 아주 좋았다.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나왔고 그의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것은 내가 추구해 오던 것이었다. 갑자기 내 마음에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평안이 깃들었다.

모임 후에 두 명의 젊은 숙녀들이 내게 다가왔다.

“선교사와 만나고 있습니까?”라고 그들이 물었다.

“아뇨.”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까요?”

“물론이죠. 그러면 참 기쁘겠네요.”라고 내가 말했다.

한 토론에서 그들은 세 왕국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에게서 들은 것을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그들이 놀랄 차례였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었다. 8월 15일, 선교사들이 내게 침례 받고 싶은지를 물었다.

“예.” 그것은 벌써부터 내가 소망하던 것이었다.

나는 다음 일요일인 8월 22일에 한 호수에서 침례 받기로 되어 있었다.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월요일인 8월 16일에 즐기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금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 보니 심한 편도선염이었다. 목 안 전체가 충혈되어 열까지 났다. 난 일요일 전까지는 낫겠지하고 생각했다.

선교사들이 토요일에 접견을 하러 왔다. 젊고 키가 아주 큰 파커 장로가 질문을 했다. 그도 내가 침례 받는 것에 동의했다. 나는 아픈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침례 받을 날이 되었다.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여전히 목은 같은 상태였다. 나는 내 인생의 첫 발자국을 위해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깨달았다. 나는 맘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 할 어떤 것이라도 다 행할 것이다. 나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물도 따뜻할거야. 그리고 침례 받고

나면 아픈 것도 다 사라질 거야.”

호수로 가는 도중에 나는 자매님들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했다. 그들은 내 입 안을 들여다보고 자기들의 비웃으로 몸을 감싸주면서 “이건 심각한데. 실내 풀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고 맘을 굳게 먹었다.

우리는 거기 도착했고 날씨도 좋았다. 호수는 잔물결 하나 없이 거울처럼 잔잔했다. 옷 갈아 입는 방에서부터 물까지는 약 100미터 정도 되었다. 그 주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땅바닥은 진흙이 되어 있었다. 탈의실에서 나와 보니 하얀 옷을 입은 파커 장로가 호수 쪽으로 진흙 속을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찔한 광경이었다.

우리는 둥그렇게 둘러서서 찬송가 한 곡을 불렀다. 날씨가 차서 우리의 입김이 보일 정도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날씨에 신경 쓰지 않았다. 물 속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행복했고 아프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소리쳤다. 나는 집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선한 일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기대하시면서 시련도 주신다.

나는 내 생애 동안 그 기적의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돌아가신 이후 그토록 오랜 세월을 싹틀 씨앗을 심으셨던 나의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함께 내 맘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

마리나 페트로바는 안트와프 벨기에 스테이크 코트라이크 지부 회원이다.



**간증과 신앙을 강화시켜 줌**

침례 받은 이후,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생의 힘든 시기마다 내게 희망과 빛과 격려를 주십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의 기사,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리아호나, 2002년 9월호, 10쪽)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과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기사 덕분에 나는 내가 마주칠 어떠한 장애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카 카로,  
라 카르로타 필리핀 지방부 망감상 지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2004년 2월호에 실린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의 기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물몬경”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암몬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자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력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리아호나는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거기서 발견하는 권고대로 실천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에크포 이 마키바,  
라코스 나이제리아 스테이크 오코코마이코

**회개는 평안을 가져옴**

나는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이

쓰신 대관장단 메시지 “영광의 관을 받고자”(리아호나, 2004년 4월호, 2쪽 참조)를 혼자서 처음 읽은 뒤에 가정의 밤에서 같이 공부한 다음, 장로 정원희 모임에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와 인봉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회개에 관한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우리 감독님에게 한 가지 오래 전의 죄를 고백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약속된 평안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회개를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익명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 받은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나는 우리 지부에서 70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아호나를 통해서 나는 온 세상의 많은 형제 자매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거기 실린 이야기들과 간증들을 읽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고 유혹을 잘 견디도록 도와 줍니다. 2003년 10월호에 실린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주님의 타이밍”은 특별히 내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나는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즐겨 읽습니다.

스베틀라나 토치키나, 러시아 사라토프 지방부 사라토프스키 자보드스코이 지부



**어린이 기사 모집**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기사를 모집합니다. - 온 세상의 어린이들의 신앙을 강화시킬 실제 이야기를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hildren's Stories,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전자 우편 [cur-liahona-imag@ldschurch.org](mailto: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기재하시고 가능하다면 기사의 주요 인물들의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존재에 관한 홀륭한 것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여러분의 조상을 찾는 일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미**국의 평원을 횡단하는 여섯 살짜리  
고아 여자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름은 엘시 앤입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두 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으며, 아이는 한동안 새어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 윈터 퀴터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재혼하여 이 어린 고아를 자신의  
친척인 피터와 로비슨 부부에게 남겨 두고 멀리  
이사했습니다. 엘시 앤은 1849년 7월에 로비슨  
가족과 함께 윈터 퀴터즈를 떠나 서부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몹시도  
그리웠습니다. 때때로 아이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라고 묻곤 했을 것입니다. 엘시 앤은 제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친할아버지이신 제임즈 애컬리 파우스트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오직  
할머니와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한  
부분이므로 그분과 큰 연관성을 느낍니다.  
그분은 유타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카우보이, 목장주, 그리고 우체국장이었습니다.  
한번은 할아버지가 겨울에 아이다호로 여행을  
했는데, 그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느 아느  
분을 만났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으며

할아버지의 친구는 코트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코트를 벗어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조상에 관해 좀더  
배움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알아내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문제와 희망과 꿈을 갖고 있던 진짜  
살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니고  
있던 덕성들이 우리의 덕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의 힘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맞이했던 도전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특징들이 우리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증손자 하나가  
아장아장 재미있게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재가 꼭 당신처럼 걷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그 특징을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각자는 매혹적인 가족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상들에 관해 알아내는 일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화나 컴퓨터  
게임보다 더 흥미로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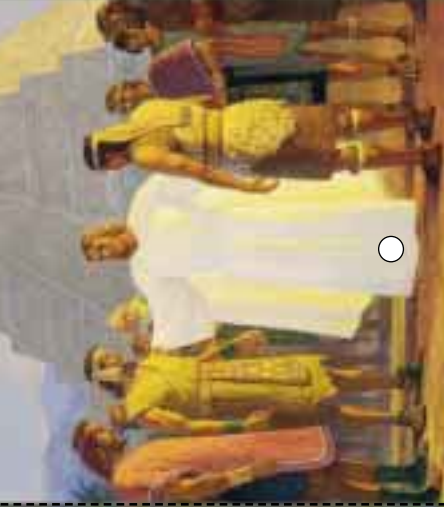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 저편에서 오는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찾아내어 의식 사업을 해  
주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친척들로부터 격려를  
느낍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입니다. ●

2003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게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리로다 하시고”  
(모로나이사서 7:33)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5)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였나이다  
니피어일서 3:7)

“나는 무플눔 극기,  
하나님께 나의 미응축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 15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게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리로다 하시고”  
(모로나이사서 7:33)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고백하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2001년, 16쪽)

에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려 하라 극기  
극기, 내게  
의뢰하십시오



삽화

주: 책에서 종이를 떼어 내고 싶지 않으면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 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자료를 원하시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원하시면 the world map을 클릭하세요.

#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제4조)

마가렛 리퍼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엘마서 32:21 참조)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해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것입니다. 신약전서는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며, 삼 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져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찬을 집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으며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깊진 진주에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에게 응답하시리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76:22~23) 그분을 알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시고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우리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모빌

친구들 4쪽을 잡지에서 떼어 내어,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인다. 굵은 선을 따라 오린다. 점선을 따라 접고 끝쪽에 풀칠을 해서 상자로 만든다. 빈 네모칸에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이고, 밑줄에는 여러분이 할 일을 쓴다. 점선을 따라 다섯 개의 작은 칸을 접어서 사진과 성구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한다. 표시된 곳에 구멍을 뚫는다. 상자 맨 위에 끈들을 붙인다. 여러분의 사진을 상자 맨 위의 줄에 묶어서 사진이 상자 중앙을 통과해 걸려 있게 한다. 남아 있는 네 개의 사진을 상자 아래쪽에 묶는다.(그림 참조)

## 함께 나누는 시간

1. 정의판 교재 앞에 나와 있는 방패를 본 따서, 커다란 방패를 그린다. 그것을 일곱 조각으로 나누고, 각 조각에 성구를 하나씩 쓴다. 아브라함서 3:27(구세주로 선택된 그리스도), 야곱서 4:9(창조주), 요한복음 20:31(하나님의 아들), 니파이삼서 27:21(모범), 요한복음 11:25(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가능케 하심), 엘마서 34:8(우리의 죄를 속죄하심), 교리와 성약 110:2~8(그분은 오늘날 살아 계시어서 그분의 예언자를 인도하심.) 어린이들에게 신앙개조 제4조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라고 가르친다. 어린이들을 일곱 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에 퍼즐을 한 조각씩 준다. 각 조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말해 보도록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방패를 만들 수 있나요?”라고 질문한다. 교리와 성약 27편 15~17절에 대해 토론한다.

2. 다음 그림들을 뒤집어 놓는다. 복음 그림 패킷 304(약속의 땅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일행), 308(노아 왕 앞에 선 아빈아다이), 310(라모나이 왕의 양떼를 지키는 암몬), 313(이천 명의 젊은 용사들), 314(성벽 위에 서 있는 레이맨인 사무엘), 321(엘마 이세의 개심). 한 어린이가 그림을 선택하고 질문에 예나 아니오로 답함으로써 “나는 누구일까요?” 게임을 한다. 어린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신앙은 ... 입니까?”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예,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신앙은 당신이 왕의 양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예언자가 누구인지 다 밝혀질 때까지 게임을 한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데이비드의 애완 수퇘지**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님은 시저라는 수퇘지를 포함해 애완 동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못생긴 동물을 좋아하시다니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어느 날 맥케이 장로가 기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우리를 부수고 나와 돌아다니는 시저가 보였습니다.



안돼, 시저! 널 잠깐 닭장 속에 넣어 두어야겠다. 돌아와서 네 우리를 고쳐 줄게.



그러나 맥케이 장로는 깜빡 잊고 시저가 어디 있는지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먹이나 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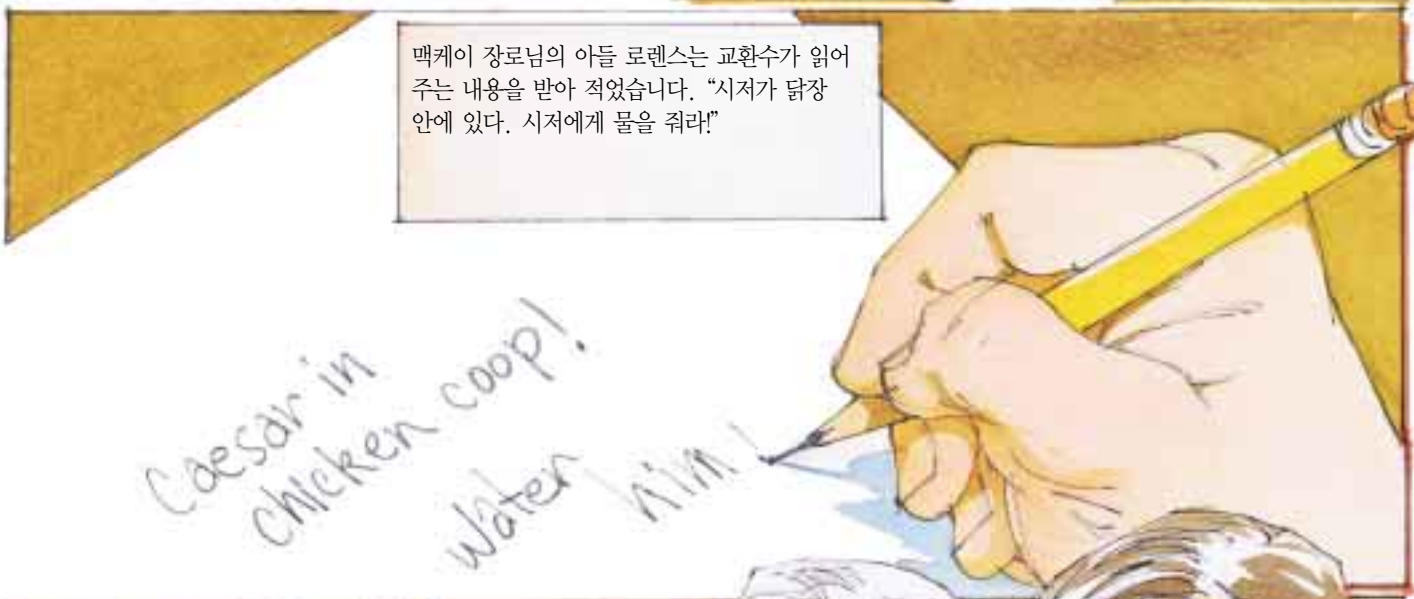


로렌스, 맥케이 씨에게 온  
전보가 있습니다.

제가 로렌스입니다.  
전보를 읽어 보세요.

이 시간에 올 소식은  
나쁜 소식밖에 없어. 아버지가  
괜찮으셔야 할 텐데.

새벽 2시에, 맥케이의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맥케이 장로님의 아들 로렌스는 교환수가 읽어  
주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시저가 닭장  
안에 있다. 시저에게 물을 줘라!"

Caesar in  
chicken coop!  
water him!



로렌스는 교환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두들  
안심하면서 웃었습니다.

그게 전보 내용의 전부야?  
아버지는 그 못생긴 늙은 돼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

Llewelyn R. McKay, Home Memories of President David O. McKay(1956년),  
127쪽에서 발췌

# 담장 뛰어넘기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로새서 3:20)



현재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대릴  
에이치 간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캘리 뷰이스

**유** 타 필딩의 작은 농장에 사는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항상 말을 갖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말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게 커다란 검정 말을 사 주셨고, 저는 그에게 스모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스모키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에게 먹이를 주러 갔는데, 스모키가 우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우리에서 한참 떨어진 건초 더미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건초를 짓밟아서 못쓰게 만들고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보아 스모키는 담장을 뛰어넘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우리에도 건초가 있었으므로 그가 이 건초

더미까지 올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스모키가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목장에서 찾았습니다. 곧 그는 우리와 목장을 모두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를 찾아 온 시대를 다 뒤져야 했습니다. 이따금 아버지와 저는 자동차로 몇 마일을 가서 그를 찾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스모키를 묶어 둘 족쇄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족쇄는 말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말에게 채우는 수갑 같은 것입니다. “이제 스모키는 도망가지 못할 게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어 그는 더 이상 별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족과 함께한 간 장로 부부



거칠어서 내가 잡을 수도 없었고 많이 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스모키에게 교훈을 가르쳐야겠다.” 우리는 스모키의 족쇄에 무거운 통나무 사슬을 묶었으며, 그래서 그는 어디든 가려면 다리 사이의 2.5미터짜리 통나무 사슬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의 습관을 확실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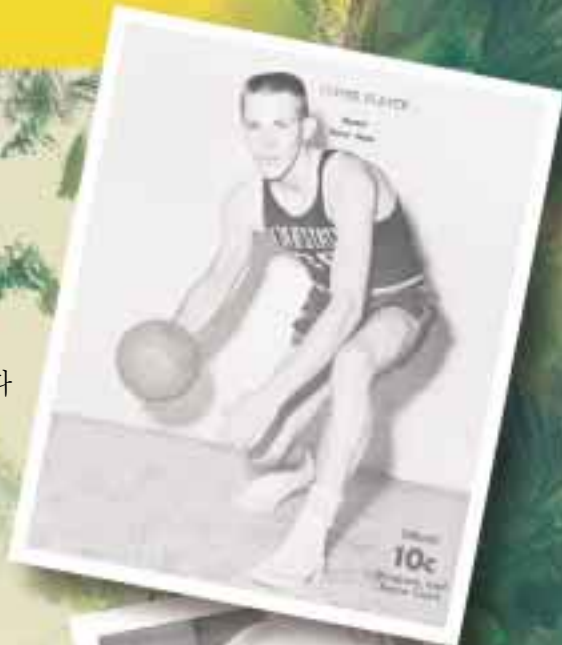
그러나 그날 밤에도 그는 다시 담장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슬에 걸려서 넘어졌고, 담장 아래로 떨어져서 철조망에 몸을 베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꺼내고 수의사를 불렀으며, 수의사는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삼촌이라고 불렀던 제 가정 복음 교사는 진짜 말 조련사였습니다. 그는 스모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모키 대신에 회색 말을 제게 주었습니다. 클라우드 삼촌은 4륜 경마차 경기에 출전하셨는데, 스모키가 훌륭한 4륜 경마차 경마와 팀을 이룰 수 있다면 스모키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경주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삼촌은 스모키를 4륜 경마차에 묶어 몇 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스모키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트랙 주변을 둘러싼 담장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클라우드 삼촌은 거의 돌아가실 뻔했고, 스모키도 매우 심하게 다쳐서 안락사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 옛날 말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가 맨 처음 건초 더미로 들어갔던 그때 그는 담장을 넘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일부 젊은이들과 같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장을 넘으면, 다른 담장을

넘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계명과 복음 원리들을 어기다 보면 머지않아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삶을 망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규칙은 종종 첫 번째 담장입니다. 부모님, 복음 원리,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날은 생애에서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



맨 위에서부터:  
대학에서 농구를 하는 모습. 선교사로 봉사할 당시, 약 16세 때 말 타는 모습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1



금식일은 각 달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그것은 금식, 기도,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금식일에, 교회의 회원들은 두 끼니 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충분한 나이가 되었을 때 금식을 하도록 권장 받습니다.



2

# 금식 헌금이 뭐예요?

“진실로 이것이 금식이요 기도니, 다시 말하면 기쁨이요 기도니라”(교리와 성약 59:14)

김벌리 웹  
교회 잡지

회원들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두 끼에 해당하는 음식을 사는 데 사용했을 돈을 기부합니다. 이 돈을 금식 헌금이라고 합니다.

3



4



회원들은 금식 헌금을 감독단이나 지부장단의 한 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나 지부장님은 이 돈을 사용하여 와드나 지부의 궁핍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 5

금식 현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6

금식 현금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7

금식 현금이 쓰이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자신들을

고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그들의 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믿는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27~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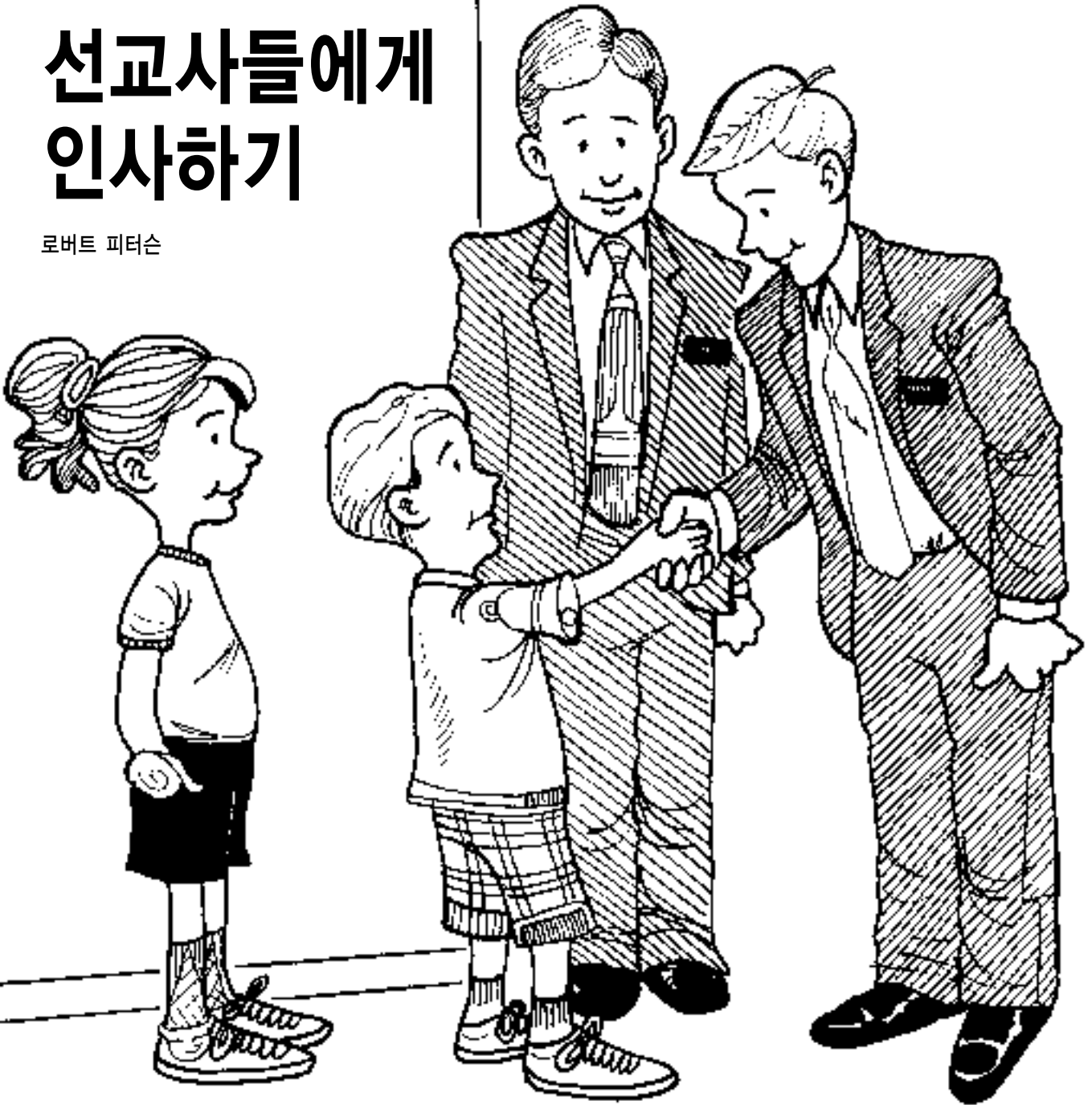
그 일을 묘사한 이 그림에 색칠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사용하여 가정의 밤 시간이나 초등학교 시간에 신앙에 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삽화: 제임스 제이 티숏, 가버나움에서 고침을 받은 두 맹인

# 선교사들에게 인사하기

로버트 피터슨



**우**리는 선교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더 자라면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요. 다음의 물건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종, 초, 빛, 독수리 머리, 아이스크림 콘, 칼, 국자, 나뭇잎, 페인트 붓, 반지, 달팽이, 칫솔. 그런 후 그림에 색칠하세요. ●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라”(니파이삼서 4:30)

# 허리케인 속의 집

멜로디 워닉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할**머니의 차가 애나 루이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쯤  
야자수들은 뒹뒹거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얘들아, 너희 물건들을 챙겨서 안으로  
들어가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차 바퀴  
뒤에 놓을 돌맹이를 좀 찾아봐야겠다.”

“왜요?” 레베카가 여쭙어 보았다.

“차가 바람에 밀려가지 않게 하려는 거야.”

할머니가 답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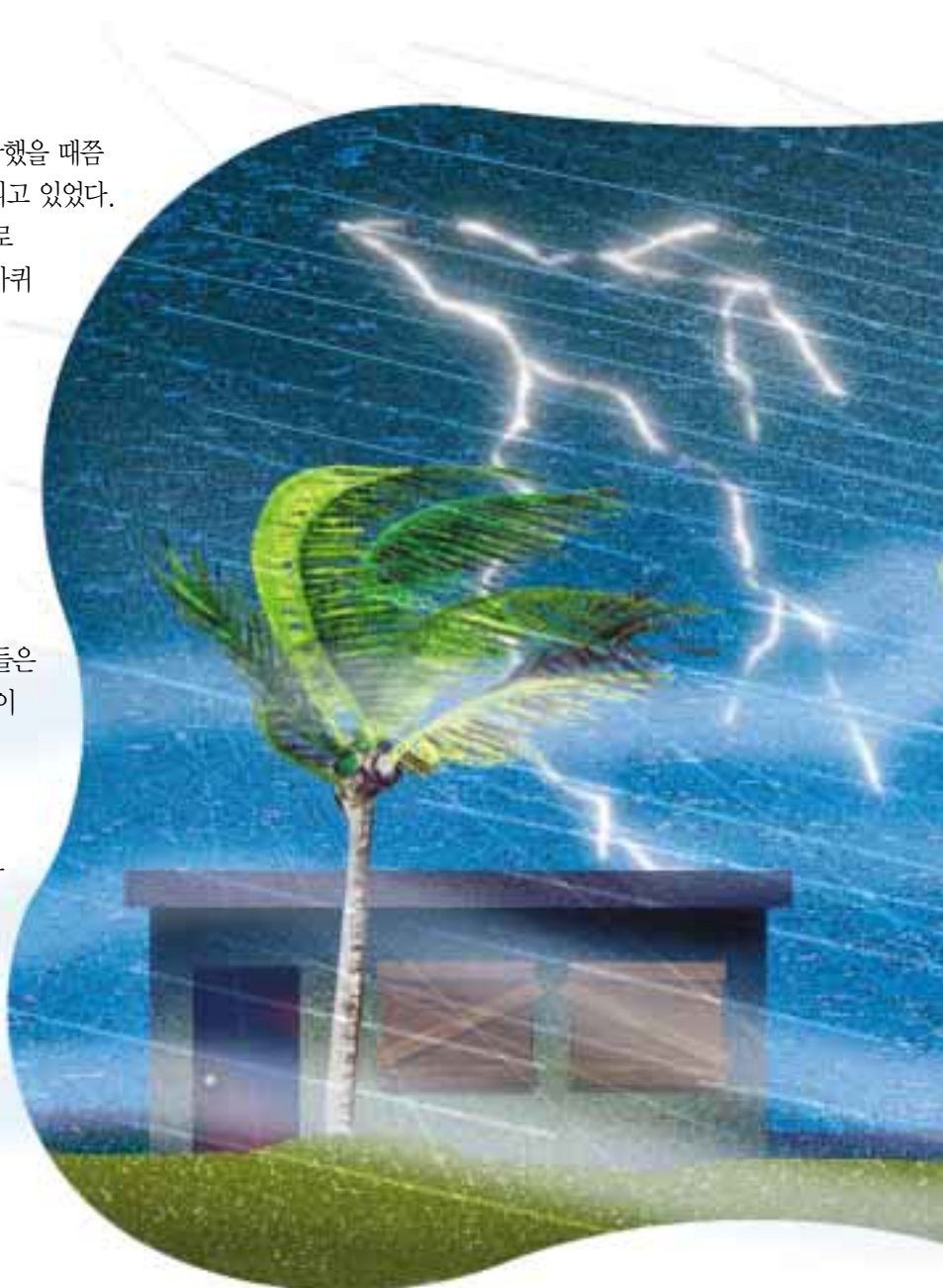
레베카와 사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팔 년 전에 푸에르토리코에 왔던  
허리케인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사라는 두  
살이었고 레베카는 겨우 한 살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레시도 강이 이웃집까지 밀려들어와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허리케인  
조지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기상 예보자들은 이  
폭풍이 더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 얘들아, 너희는 허리케인 조지에 대비가  
되었니?” 그들이 앞문으로 들어가자 아나  
루이사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 소토 형제님이 우리집에  
오셨고, 판자에 못질을 해서 모든 창문을  
막았어요. 할머니는 모든 것이 괜찮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라고 사라가  
말했다.

“맞아” 아나 루이사가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야.”

아나 루이사는 새로운 교회에서 만난 친구였다. 소녀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아나 루이사의 위로와 그녀의 안락한 집 안에서 풍기는 쌀과 콩의 익숙한 냄새를 맡자 기분이 나아졌다.

꼭 3개월 전에 할머니와 소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자매 선교사들 역시 아나 루이사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재미있을 거야,” 선교사들 중 한 명인 루이스 자매가 그들에게 말했다. “파티처럼 말이야, 날씨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

한동안 그것은 파티 같았다. 그들은 저녁을 먹은 후, 과자를 먹었으며 라디오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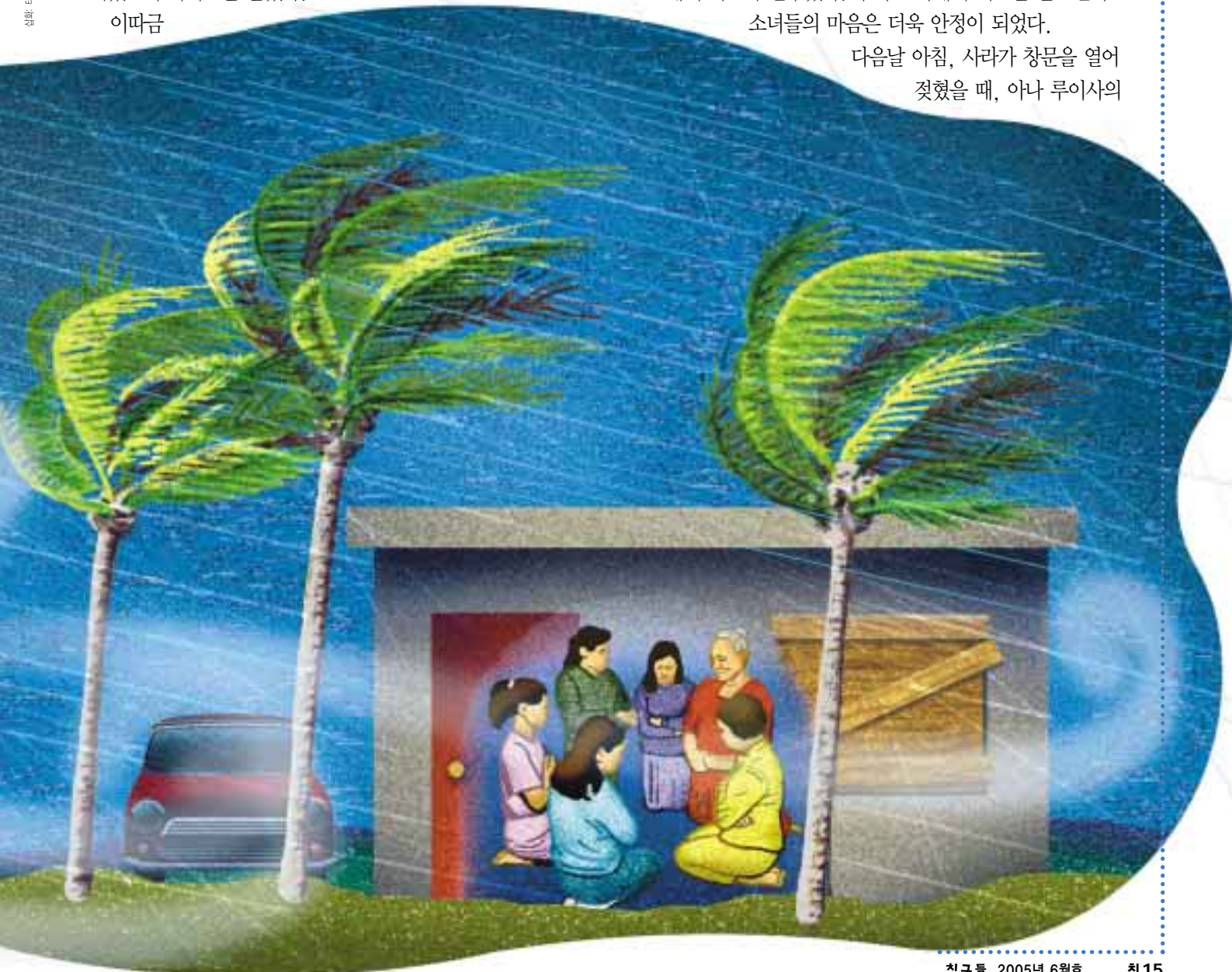
이따금

밖에서 뭔가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레베카와 사라의 할머니의 차가 끝내 날아가 버리지는 않았을까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았다.

나중에는, 전기가 깜빡거리더니 정전이 되었다. 레베카가 손전등을 비추어 재미있는 얼굴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이제 자야 할 시간 같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잠옷으로 갈아 입자, 할머니는 사라와 레베카를 거실로 부르셨다. “함께 기도를 할거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루이스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폭풍이 지나갈 동안 그들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레베카와 사라의 집을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했다. 루이스 자매의 기도를 들으면서 소녀들의 마음은 더욱 안정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사라가 창문을 열어  
젖혔을 때, 아나 루이사의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은 성경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실현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성경 이야기와 개인적인 보호”,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39쪽.

짙은 마치 다른 행성의 거리처럼 보였다. 할머니의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몇몇 나무들이 뽑혀 쓰러지고, 다른 집 지붕을 덮었던 금속판들이 아나 루이사의 잔디밭에 날아와 있었다. 비둘기들은 보도 아래를 힘없이 돌아다녔고, 비에 흠뻑 젖어 날지 못했다. “아나 루이사의 집 앞이 이런데, 우리집은 어떨겠니?” 사라가 레베카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날 아침 일찍 할머니는 차를 몰고 그들의 집이 어떤지 보러 갔다. 할머니는 점심 때쯤이 되어서야 돌아오셨다. “이웃 거리에 물이 차서 우리 집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어.”

레베카는 울고 싶었다. 사라가 물었다. “이제 어찌죠, 할머니?”

“아나 루이사가 괜찮다면, 이 곳에 며칠 더 머물러야 겠구나. 아마 그때쯤이면 물이 빠져서 집에 갈 수 있을거야.”

\*\*\*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할머니와 레베카, 사라를 돕고 싶어했다. 아나 루이사는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고, 자매 선교사들은 루이스 자매의 가족이 보낸 옷들을 가져왔다. 에스피노사 감독님은 할머니가 편찮으시자 축복을 하러 오시기까지 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있지 못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집이 그 곳에 그대로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여드레가 지나자 그들의 이웃에 있는 거리가 마침내 깨끗해졌다. 할머니 차의 뒷자석에 안전 벨트를 매고 앉은 사라와 레베카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느꼈다. 차를 타고 지나가자 허물어진 집과 벽들이 보였다. 부서진 식탁, 흠뻑 젖은 매트리스, 진흙으로 범벅이 된 냉장고들이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집이 없어졌으면 어떡하죠?” 레베카가 물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집을 찾도록 도와 주실 겁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다.

이웃의 거리는 여전히 검은 진흙으로 질퍽거렸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천천히 운전을 해야 했다. 마침내, 할머니는 모퉁이를 돌아 그들의 집 앞으로 들어섰다.

“보인다!” 레베카가 소리쳤다. “우리집이 그대로 있어!”

“지붕에 구멍이 났어.” 사라가 가리켰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는 진흙 냄새가 났다. 소녀들은 공기가 통하도록 매트리스를 벽에 기대어 놓고 지붕 구멍을 통해 들어온 물을 닦아 내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오늘 밤 여기서 잘 수 있을까요, 할머니?” 레베카가 물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구나. 지붕을 고칠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려야겠다.”

레베카는 한숨을 쉬며 축축한 소파에 앉았다. “집에 있을 수 있다면 좋겠어.”

“난 집이 그대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 주셨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런 후, 현관 밖을 내다보시면서 거리 쪽을 가리키셨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것 같구나.”

밖에서, 기증기가 달린 커다란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다. 에스피노사 감독님과 소토 형제님이 와드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내리셨다.

“뭐 필요하신 도움 없나요?” 감독님이 외치셨다. “지붕 고칠 사람이 필요할 것 같군요.”

사라와 레베카는 손을 맞잡고 소리쳤다. “이제 여기 머물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 오늘 밤 여기서 잘 수 있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애들아.” ●

멜로니 워낙은 아이오와 에임즈 스테이크 에임즈 와드의 회원이다.



# 친구들

